

PART 1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PART1

#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PART1**

#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발간에 부쳐

2020년 2월  
(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1993년 여름, 서울 모 대학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에 소개된 ‘이름 없는’ 사건이 최초의 ‘성희롱’ 사건으로 명명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국가는 법령과 제도, 기구들을 만들었고, 대학들은 2000년을 전후로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처리를 위한 규정과 지침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는 대학의 관련 기구들이 힘을 합쳐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20여년 남짓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학은 꾸준히 제·개정된 국가의 법령과 대학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사건 당사자에 대한 대학 차원의 상담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는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교내외적 협력을 통해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다른 공공조직이나 민간회사 등에서 드러난 유사 사건들과 특성이 다릅니다. 발생의 맥락과 피해의 성격이 다르고, 그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대학은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직원 등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유형에서 사건이 비롯됩니다. 학생 대 학생 사건, 교수 대 학생 사건, 직원 대 학생 사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발생 장소 그리고 그 처리결과 등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에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존재하고, 관련 업무의 근거가 되는 학내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합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고 2018년 이후 각계각층의 미투 운동으로 전 사회적으로 여성인권 향상에 대한 열망과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건 처리에 직면한 전담자에게는 더욱 고도화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교육부 산하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담자가 명확한 기준과 표준화된 처리방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 가능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담자가 단계별 상황을 숙지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매뉴얼이 전담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의 규정이 우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이 소속 대학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소속 대학의 규정이나 절차가 허술하거나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면 이는 궁극적인 목적인 피해자의 보호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위배되므로, 이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비교하여 해당 규정이나 절차를 개정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와 이에 관련된 고충상담은 심리상담과 다르고 독자적으로 축적된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뉴얼이 대학의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당면한 관련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담자들의 사건 처리 경험을 축적하여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나침반의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 I. 대학 성희롱 · 성폭력이란? 05

1. 대학 성희롱 · 성폭력의 특성 및 동향
2. 성희롱 · 성폭력의 정의
3. 대학 성희롱 · 성폭력 행위별 분류
4. 디지털 성폭력
5.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해결 목적과 원칙

## II.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17

1. 사건처리 흐름도
2. 상담단계
3. 2차 피해 이해와 대응 그리고 예방
4. 조사단계
5. 심의단계
6. 징계 및 후속조치 단계
7. 사건처리 서식 및 기록물 관리

## III.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유형별 스토리텔링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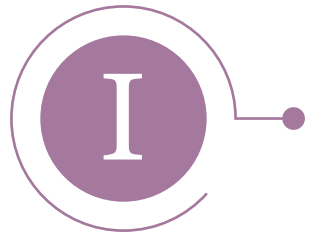
1. 학생 · 학생 간 성폭력
2. 교수의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
3. 디지털 성폭력
4. 교내 구성원이 아닌 비구성원 가해행위자
5. 부적절한 놀이문화
6. #MeToo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게시물

## 부록 및 기타 89



# 대학 성희롱 · 성폭력이란?

1. 대학 성희롱 · 성폭력의 특성 및 동향
2. 성희롱 · 성폭력의 정의
3. 대학 성희롱 · 성폭력 행위별 분류
4. 디지털 성폭력
5.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해결 목적과 원칙



# 대학 성희롱·성폭력이란?

## 1.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및 동향



### 가.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 1) 권력관계에 기반: 문제제기 힘들

-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건 양상이 복잡함.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은 위계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이며, 노동권과 교육권, 즉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가 동반됨.
- 대학 내 사제 간, 선·후배 간, 동급생 간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관계 내 존재하는 위계와 힘의 영향력 또는 친밀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sup>1)</sup>

#### 2) 2차 피해 발생

- 행위당사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학업과 진로에서 불이익 또는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고, 특히 대학 전공 연구분야 내 대인관계가 매우 한정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학업과 진로(취업, 학위 취득, 연구활동)에서 오랜 기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학업 및 진로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즉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예 처음부터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사건발생 및 당사자 개인신상이 주변에 알려져 누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소문이 나고, 그 내용이 확산·전파되는 경우, 주변인들이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당사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학업 및 진로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게 되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주변인들이 사건발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은폐·축소하려 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호소 자체를 의심하며, 가해행위자를 옹호하거나 사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해자에게 화해를 종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음.

1) 김영희. (2015. 06).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대학교육, 189, 73-74.

### 나.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동향

#### 1) 미투운동 영향

##### 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증가와 연대대

- 2018년 초 미투(#MeToo) 운동의 시작으로 인해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공개적으로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함.
- 대학에서도 미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위드유(#WithYou)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연대하는 적극적인 지지 활동이 이어짐.
- 특히 위계관계의 교수-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연대하면서 가해행위자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실천적 활동을 위해 이어가고 있음.

##### 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증가

- 미투 이전, 대학에 신고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양상은 1:1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피해자 1인 사건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투 이후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교적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의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 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공론화

- 미투 운동은 소셜네트워크의 전파력이 기폭제가 되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개선을 위한 뜻을 모을 수 있었음.
- 학생들은 수업시간 중 교수가 발언한 내용이 성차별·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SNS에 공론화하고,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실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짐.

##### 라) 교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전담기구(이하 '상담기구')가 아닌 외부기관으로 신고접수 증가

- 사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교육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진정하는 등 신고접수 경로 다양화.

##### 마) 법적 소송 증가

-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 가해행위자의 무고 주장에 따른 맞고소와 명예훼손 형사소송.
- 가해행위자가 사법처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 및 취소 소송 제기.

### 바) 교원징계 건수 증가

-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까지 총 23건<sup>2)</sup>으로 2018년 미투 이후 교원징계 건수 증가.

## 2) 디지털 성폭력 증가

### 가) 불법촬영 증가

- 대학 내 화장실, 도서관, 강의실, 기숙사, 학교 주변 공공장소, 등·하교 시 대중교통 등에서 불법 촬영 다수에 대한 불법촬영 증가.

### 나) SNS 단체 대화방 사건 증가

-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성적인 함의가 담긴 콘텐츠(불법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공유 등.

### 다) 촬영물 유포에 대한 협박

- 연인 사이에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내용의 사진 및 영상물을 이별 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 3)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처와 처리결과 차이

- 구성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학은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함은 물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에 연루되는 관계가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사건의 추이와 양상이 복잡하여 여러 가지 주요 맥락을 살펴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한 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
- 대학은 일관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기구를 설치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 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각 대학의 자원에 따라 달리 정해지고 있어 해당 업무담당자의 대학 내 위치와 상담기구의 직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와 처리에 차이가 있음.
- 사건처리 업무의 첫 번째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2차 피해 예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대학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상이하여 사건처리 진행 절차가 다르고, 상담기구의 사건처리 역량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크게 차이가 남.
-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수위 또한 대학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징계결과가 다름.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요구됨.

2) SBS뉴스 (2019), 성비위 대학교수 4년간 최소 120명.. 파면해임 53%, 2019.10.10, <https://news.sbs.co.kr/news>

## 2.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 현행법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정의는 각각 구별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을 기본 정의로 언급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초로 함.
- 대학에 마련된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은 대학마다 상이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정의를 법령 등을 기초로 구별하여 적시한 경우와 성희롱을 보다 큰 개념으로 보고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로 성폭력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그 안에 성희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기도 함.

## 가. 성희롱·성폭력의 법령상 정의

〈표 1-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적용<sup>3)</sup>

구분	관련법령	법적 정의	법적용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상위기관 제소
성폭력	기본법 특별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 처벌

-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가 법령상 구분이 되어 있으나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음.<sup>4)</sup>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대상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적용됨. 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대상이나 대학 1학년은 본 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sup>5)</sup>

3) 교육부, (2019),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p.7(표1-1)수정.

4) 법령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 개념과 판단 기준은 본 매뉴얼 파트2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것.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기관장급 그 종사자는 직무상 19세 미만의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나.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각 대학 관련 규정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며 각 대학 실정에 맞게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1)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사용.
-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함되어 정의(성희롱 정의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 예)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여 사용.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추가하여 정의.
- 예) “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2차 피해, 성차별 등을 성희롱에 포함하여 규정에 제시하기도 함.

### 3)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정의 간 차이 발생 원인

- 2001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남녀차별금지법령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각 학교(기관) 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sup>6)</sup>
-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하고,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 중인 바, 대학마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기준에 따라 개념 및 정의가 다름.
- 대학은 엄격한 법적 정의보다 성희롱·성폭력을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재량권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음(예를 들면 학생이 가해행위자였을 때보다 교수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규정위반 행위는 교육자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포함되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기도 함).

6)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2019).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세미나 자료집. 9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p.30.

## 3. 대학 성희롱·성폭력 행위별 분류



〈표 1-2〉 대학 성희롱·성폭력 행위별 분류

유형	행위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 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희식자리 등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성폭력	강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유사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준강제 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데이트 성폭력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 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통신매체 이용음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 4.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말함.
- 젠더기반 폭력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도구나 통제·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여성과 상반되는 속성으로서의 '남성성'을 강요하는 문화에서 남성 역시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함.
- 여성이 성적 도구 또는 성적 이미지로 소비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매매, 강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과 연장선상에 있음.
-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당장 알아차리기 어려움.
  -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의 공연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유포 및 재유포 될 가능성이 큼.
  -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삭제 및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움.
- 현재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포함됨.
-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정책·법률·판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표 1-3〉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별 유형

유형	내용	적용법률	예시
촬영	설치형/직접 촬영형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여자 화장실 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하여 촬영 -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 촬영
유포 재유포	성행위, 음란한 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 복제물을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성행위, 나체, 성적인 촬영물(이하 성적 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을 비동 의하에 유포 - 비동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을 비동의하에 유포 - 스스로 찍은 성적인 촬영물 유포 - 성적인 촬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 하여 유포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로드 후 재유포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다운 및 업로드
유포 협박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형법」 제283조	- 연인 간 이별 시, 혹은 이별 후 유포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촬영 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 소비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 방조 및 협조 비동의 성적인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 으로 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92조, 제104조 「청소년보호법」 제17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적용 -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처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원하지 않는 언어적 성희롱 및 이미지 전송 -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 게시 - SNS 단체대화방 내 성희롱



## 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해결 목적과 원칙



### 가.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해결 목적

- 대학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가해행위자와 피해자 개인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학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고,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은 대학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됨.
- 사건이 발생하면 대학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하여야 함.
- 사건 해결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며,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를 일차적으로 해야 함.
- 가해행위자에게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특히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진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권리 침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수립과 공동체 문화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학 공동체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함.

### 나.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학 내 해결의 원칙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형사 절차를 통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기관이 가지는 고유 목적을 고려해야 함.

#### 1) 피해자 보호

-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을 돕고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교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모색.
-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불이익 금지.

#### 2) 비밀유지

- 사건처리 담당자, 조사·심의위원, 징계 업무담당자, 징계위원 등 해당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원 및 사건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 당사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련인들도 사건처리 절차과정 중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에 대한 개인신상 뿐만 아니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 유지와 소문 금지를 요청해야 함. 대학 공동체(학과, 단과대, 동아리 등) 구성원 범위는 비교적 제한

되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실명은 아니더라도 개인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변정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3) 신속성, 공정성

-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신속히 실행해야 함.
- 교내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함.
- 규정과 시행세칙이 정한 진술의 기회와 자료 제출 기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 조사, 심의 및 징계 등의 과정에서 사건처리 당사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

#### 4) 가해행위자 책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가해행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 및 책임을 결정할 때는 징계 등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의 내용에는 재발방지 및 공동체 문화개선을 실천하도록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
- 징계만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 오히려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내에서 사건처리 결과로써 반드시 가해행위자가 올바른 성인식 및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조치하도록 함.
- 재발방지 조치는 가해행위자 본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조치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공동체 전체가 회복될 수 있음.

#### 5) 공동체 문화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공동체 문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
- 사건이 발생한 학과나 단과대, 동아리 등의 공동체에 2차 피해 예방과 공동체 문화 개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이나 개입이 필요함.
- 사건이 종결되어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모니터링 후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공동체 문화를 공고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함.
- 학생회 등 학생 자치기구와 학생 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문제해결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 이후 문화 점검과 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할 때, 상담기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조할 수 있음.
- 학생회와 협력할 때는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제3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와 행동 그리고 공동체 회복과 성평등 문화확립 등이 중요함을 안내하여야 함.

- 상담기구에서 학생 사회의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안이나 공모 사업(학생들이 성평등한 문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지원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학생 자치기구 등에서 내부 규정 및 자치규약을 만들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항,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이때 상담기구에 의견을 요청하기도 함.
- 새내기를 위한 새로 배움터, OT, MT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 기회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지침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공유하도록 독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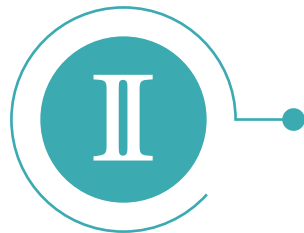
## 6)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지와 협력이 중요함

- 대학 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해결하는 관련 규정의 정비.
- 대학 내 사건처리 절차 체계 구축.
- 대상별 대학 내 사건 발생 시 상담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과 공유.
- 보직교수(학장, 학과장, 부속기관장 등)와 지도교수, 조교 등을 대상으로 문제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와 학생이 고충을 상담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하여 상세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 대학 내 공동체 문화는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성평등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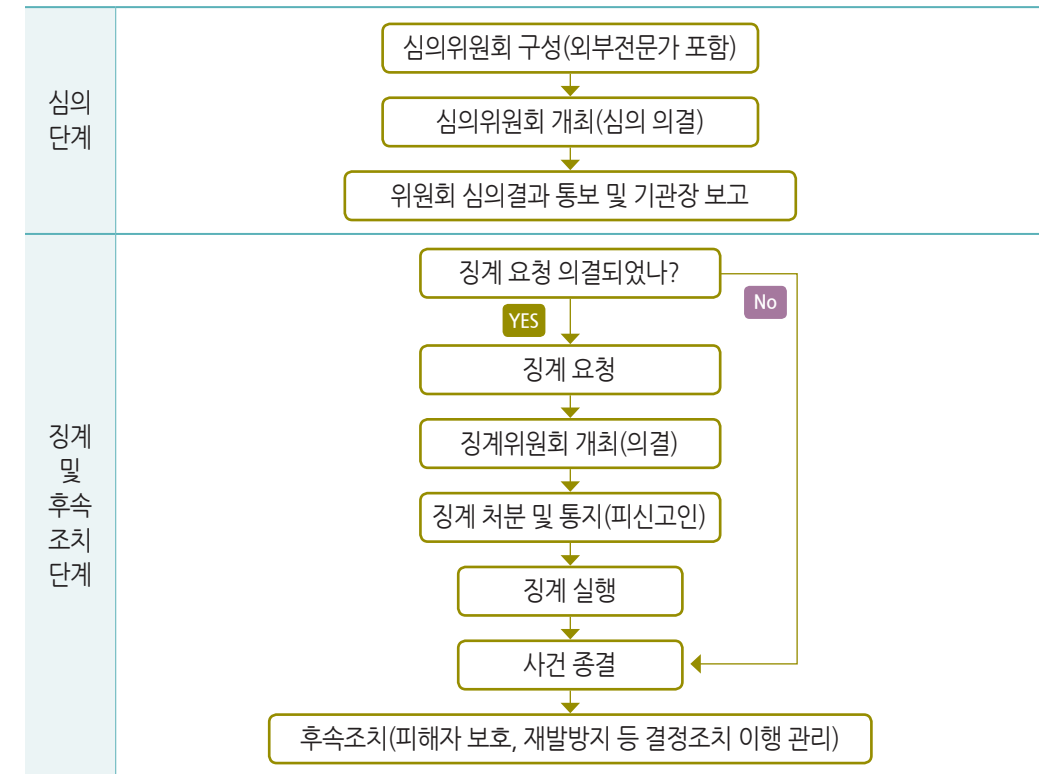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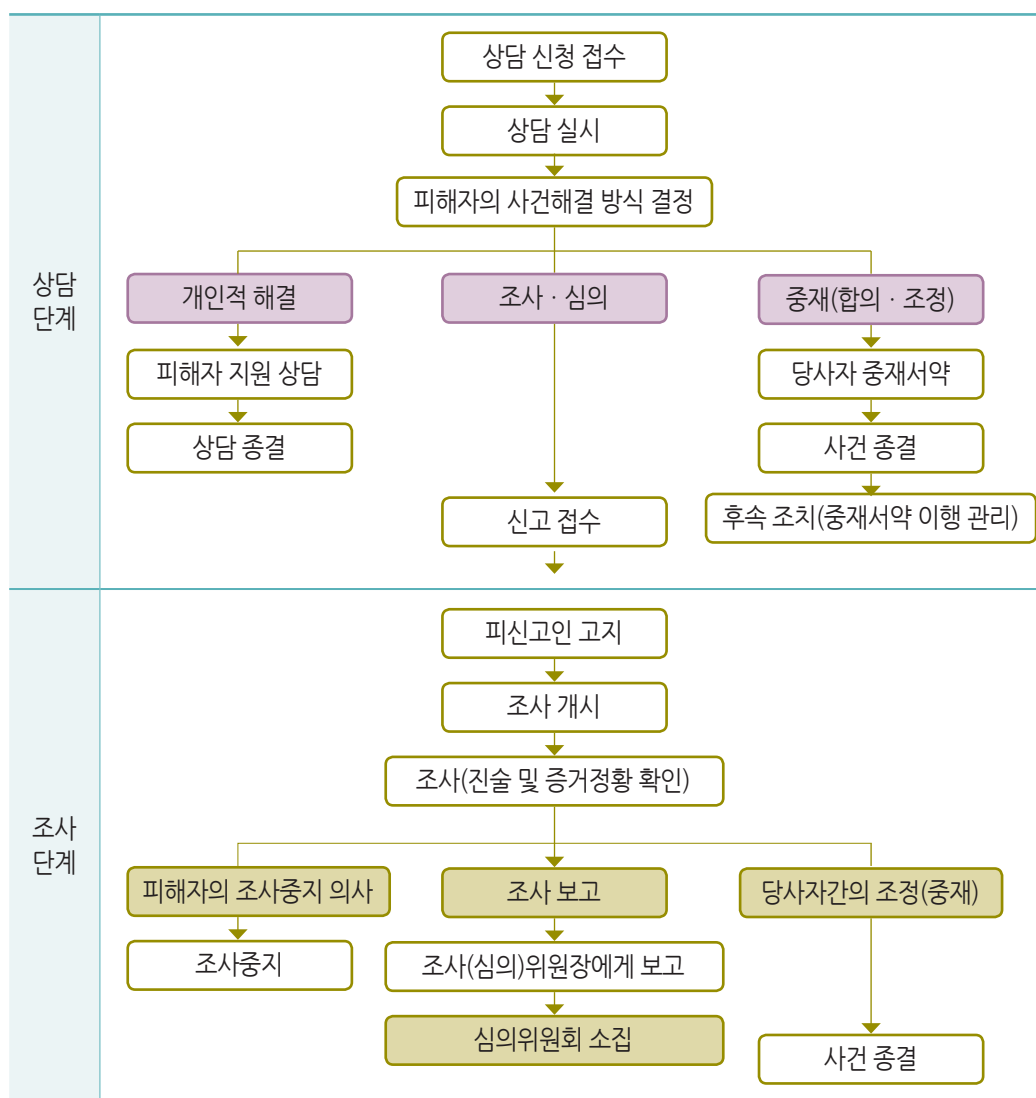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1. 사건처리 흐름도
2. 상담단계
3. 2차 피해 이해와 대응 그리고 예방
4. 조사단계
5. 심의단계
6. 징계 및 후속조치 단계
7. 사건처리 서식 및 기록물 관리



#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1. 사건처리 흐름도



## 2. 상담단계



- 상담단계는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 · 심리 ·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 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임.

### 가. 상담기구의 주요 업무

〈표 II-1〉 상담단계에 따른 상담기구의 주요 업무

상담 단계	상담 개요	주요 업무
접수 상담	접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신청 접수</li> <li>■ 상담내용 녹음 동의</li> <li>■ 심리적 지지를 통한 라포(rapport) 형성</li> <li>■ 학교규정 및 사건처리제도 안내</li> <li>■ 비밀유지원칙 및 피해자 보호 안내</li> </ul>



접수 상담	고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당사자 관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관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안내</li> </ul> </li> </ul> </li> <li>■ 사건개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 시간, 당시 상황, 행태 및 유형, 피해특성, 지속기간, 반복정도 등</li> </ul> </li> <li>■ 증거정황 정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격자/증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증거자료, 일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 CCTV, 진료기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단계에서는 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와 증거확보 관련한 안내만 하고 구체적인 증거 제출은 신고 후에 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li> </ul> </li> </ul> </li> <li>■ 피해자 대응 및 가해행위자의 전후 행동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행위자의 언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경험 이후 피해자의 행동(누구와 해당 사안을 상의했는지, 가해행위자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사건발생 이후 가해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가해행위자의 이전 유사 언동 여부 등</li> </ul> </li> <li>■ 사건이 야기한 고충(어려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행위자 언동으로 인한 신체손상, 심리·정신적 고통, 학습·교육·연구·근로환경악화 및 불이익, 신체·심리·사회적인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어려움</li> </ul> </li> <li>■ 상담신청의 계기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관련 상담의 계기, 동기</li> <li>- 사건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목적, 상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li> </ul> </li> </ul>
상담 과정	해결 방향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는 사건 해결방향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에 대한 이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두려운 것, 예상되는 최상의 상황,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li> </ul> </li> <li>■ 가해행위자·상담기구·학교에게 원하는 사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에 대한 책임, 재발방지, 가해행위자 조치 혹은 징계요구, 공간분리,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li> </ul> </li> </ul>
	해결 방안 검토 및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해결방안의 장단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행위자와의 개인적 해결, 학교(상담기구)를 통한 중재 해결, 학교의 조사 및 심의 해결,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해결, 사법적 해결</li> </ul> </li> <li>■ 상담신청인의 원하는 해결방안 선택</li> </ul>
상담 종결	상담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선택한 해결방안에 대한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신고서 접수, 중재(조정, 합의) 절차와 당사자 간 해결 절차에서 필요한 문서 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조정, 합의) 절차는 사건신고 접수 후 진행할 수도 있음</li> </ul> </li> </ul> </li> </ul>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 관리, 개인정보 비실명, 별도 보관, 기밀 유지, 필요시 문서결재</li> </ul> </li> </ul>

## 나. 상담단계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실무 역량

- 1) 피해자의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이해하는 관점 유지(높은 성인지 감수성 필요)
-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
- 3)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관련 규정 및 사건처리절차 사전 숙지
-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법 이해와 실행 능력
- 5) 상담 및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 6)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다양한 대응 방안<sup>7)</sup>에 대한 이해(그림 II-1 참조)

〈그림 II-1〉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다양한 대응 방안



7) 김영희, 김진희, 노정민, 심현정. (2017).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서 발췌하여 일부 보완함.

7) 상담 시 대상별 유의점<sup>8)</sup> 숙지

## 가) 피해자

-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담당기구의 자의적 판단 금물
- 사건처리결과 예단 금물
- 학교 혹은 담당기구의 권한 밖인 해결방안(보호조치 포함) 제시 금물, 권한으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할 것
- 가해행위자에 대한 이해 및 관용을 베풀도록 유도 금물, 종교적인 이야기 금물
- 상담신청인의 책임과 과실을 묻는 발언 금물
- 사건과 무관한 내용에 대한 질문 금물
-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 금물
- 성적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질문 금물

## 나) 가해행위자

-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지목된 경우 행위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성적굴욕감, 불쾌감, 피해 등)이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
- 자신의 행위를 상담신청인(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조력
-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
- 피해자의 사과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심으로 사과하도록(구체적인 잘못 인정, 재발방지 약속 등 포함) 조력
- 피해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듣고, 할 수 있는 행위책임을 실행하도록 조력
- 담당기구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
-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 노출, 소문 등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력
-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조력

## 다) 주변인(관리자, 동료 등)

- 사건해결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조력
- 담당기구와 소통하면서 주의점과 방법을 조언 받아 사건해결에 조력할 것을 요청
-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하여 질문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력
- 피해자에게 가해행위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함
- 사건 인지 후 가해행위자를 바로 내쫓는 등 자체적 해결을 하지 않도록 함
-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됨을 인식하도록 조력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조력
- 사건이 왜곡/확대되지 않고 비밀유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력
-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말하지 않도록 조력
-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들릴 때 즉각 중지시키도록 조력
- 가해행위자를 동정하는 것이 가해행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도록 조력

8) 김형희. (2019).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워크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 및 심화과정 자료집.

다. 상담단계에서 안내할 사건 해결을 위한 개요<sup>9)</sup>

- 업무담당자는 상담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필요시 내담자에게 안내해야 함.

##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방식 결정]

- 피해자가 상담하면서 스스로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해결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 크게 아래 세 가지의 해결방식이 가능함.

## ① 학내 해결

합의·중재를 통한 처리와 조사·심의를 통한 처리가 있음.

피해자가 합의·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때는 상담기구의 개입 하에 당사자 간 합의·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학칙(학생)/인사규정(직원)/교원인사규정(교원)에 따른 가해행위자 징계를 원할 때는 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조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진행.

## ② 사법적 해결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등을 원하는 경우는 경찰서, 해바라기센터(구 원스탑센터), 민간 상담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 무료법률상담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등을 안내.

## ③ 당사자 간 해결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 직접적인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을 피해자 스스로 혹은 제3자가 가해행위자에게 전달하여 가해행위자가 이를 수용하고 이행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임.

※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을 하려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가해행위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입거나 오히려 사건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소통방식에서 각별한 유의가 요망됨.

## [학내 사건해결 방향]

학내에서의 사건해결은 크게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함. 첫째,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2차 피해 방지, 피신고인의 공간분리조치,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 공동체의 피해자 회복을 위한 협력 등)을 실행하는 것, 둘째, 피해발생에 대해 가해행위자의 정당한 행위책임의 수준(교육적, 징벌적 책임 등)을 정하고 가해행위자가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개선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 셋째, 공동체의 성평등 문화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것임.

9) 노정민, 김현정, 이경희. (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15.12,에서 발췌하여 일부 보완함.

### [가해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제공]

- 피해자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피해당사자로서 가해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피해자에게 업무담당자가 가해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의 방식들을 알려주는 것은 피해자로서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험이기도 함.
- 가해행위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요구되는 것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밖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도 있음.
-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규정이 정한 징계 외에도 교육적 목적을 위한 재발방지와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방식들이 요구됨.
- 가해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의 방식들
  - ① 잘못 인정과 사과
  - ② 공간분리(수업, 업무, 동아리 활동 등)
  - ③ 가해행위자 개선을 위한 교육(성인지 감수성 향상, 재발방지 등)
  - ④ 가해행위자 심리치료(음주문제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등)
  - ⑤ 사회봉사활동
  - ⑥ 행위 재발방지 약속
  - ⑦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지급
  - ⑧ 학교 정관·인사규칙·학칙에 따른 징계
  - ⑨ 사법적 처분
- ※ 학교 규정에 명시된 가해행위자 조치 조항 확인 후 안내 요함

### [학내 중재처리 절차 개요]

피해자가 중재처리를 결정 ⇨ 중재요청서 제출 ⇨ 피해자가 원하는 중재 사항을 정리 ⇨ 상담기구에서 가해행위자에게 중재요청 접수를 알리고 비밀유지를 약속받은 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 가해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하면, 상담기구에서 중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중재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에게 전달하고 양 당사자가 중재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각각 서명함 ⇨ 상담기구는 가해행위자의 합의사항 이행 관리 및 당사자 모니터링을 함.

### [학내 조사·심의 절차 개요]

- 사건신고를 접수한 상담기구는 사건당사자 양측에 조사개시를 통보함 ⇨ 업무담당자가 각각 당사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면담을 진행함 ⇨ 심의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청취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 다음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로 인정되면 의결사항(징계요구, 공간분리, 가해자 교육, 사과문 제출,

학과나 단과대에 협조 요청 등)을 결정 ⇨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 ※ 피해자가 출석진술을 원치 않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그 밖의 제출자료, 조사면담 내용을 근거로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음.
- 재조사 또는 재심의 요청이 가능한 규정이 있는 대학에서는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재조사 또는 재심의 요청이 가능함을 알리고 관련 서식과 절차를 안내함.
- 가해행위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의결하여 당사자 통보 후, 재조사 또는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거나 혹은 재조사 또는 재심의 요청이 없을 때는 해당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담기구의 사건처리 행정업무를 종결함.
- 징계위원회 회부 후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유지는 지속되어야 하며,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진행함.
- 징계위원회 회부 이후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진행되어 학교의 징계가 결정됨.

## 라. 상담단계 업무담당자 역할

- 상담접수 시점부터 피해자(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사건을 인지한 주변인 혹은 학교관계자 포함)와 라포를 형성하고 상담을 시작하며, 상담과정에서 파악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규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함.
-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선택하도록 도와줌.
- 상담의 3단계

### 1) [접수상담] 접수안내 및 고충파악

- 상담을 시작할 때, 우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초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상담내용과 상담신청인의 개인신상은 비밀이 유지됨을 설명함.
- 학내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기구의 역할과 상담의 범위, 학교규정에 따른 처리절차의 개요와 비밀유지 원칙을 안내함.
- 사건과 고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녹음의 필요성(상담내용은 비밀유지되나 추후 상담기구를 통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담기록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피해자가 녹음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종이에 기록하며 면담을 진행함.
- 피해자가 상담내용을 종이에 기록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추후 상담기구를 통해 사건처리를 원할 때 서면진술서에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담당자는 상담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이 경우 상담이 끝난 후 담당자가 간단히 상담내용을 복기하여 기록하도록 함).
- 상담기구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상담자는 가능하면 개방형 질문(Open Question)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줌.



- 피해자가 사건개요, 증거정황, 피해대응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돕고, 사건으로 인한 고충과 상담기구에 찾아오게 된 계기,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해행위자/상담기구/학교에 바라는 '원함(want,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도와줌.
-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반영(reflection)하면서 고충과 요구사항에 대해 말한 것을 다시 확인하여 요약(restatement)함.
- 업무담당자의 공감적 경청 태도와 고충에 대한 위로 및 지지표현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2) [상담과정] 해결방안 검토 및 선택

- 피해자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함.
- 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겪는 신체·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주는 것이 중요함.
- [1단계 접수상담] 단계에서 파악된 내용이 학교 규정에 따른 사건처리가 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사건처리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사건처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탐색하여 피해자 스스로 사건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사건 해결방안을 선택하도록 지지함.
- 피해자에게 학교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 스스로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 및 제도적 한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함.
-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지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주고, 사건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함.
- 이를 통해 피해자는 학교규정에 따른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 해결절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됨.

## 3) [상담종결] 상담종결 및 문서화

- 피해자가 상담기구를 통해 사건해결을 결정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유지 서약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서약받도록 함.
- 피해자가 학교의 조사 및 심의절차를 통해 사건해결하기를 선택한 경우, 피해자가 작성한 사건 신고서를 접수받아 조사단계를 개시함.
- 사건 신고서와 사건에 대한 서면진술서는 순차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
- 피해자가 상담기구를 통해 합의·중재 해결을 선택한 경우, 상담기구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받은 가해행위자를 면담하여 행위사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가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중재(조정,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면 중재가 성사되어 사건이 종결됨.
- 중재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2단계 상담과정]의 상담을 다시 진행함.
- 때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확산이 예측되는 경우 상담기구의 장이 조사·심의위원장 혹은 총장 보고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책무에 따른 조사(직권조사, 외부조사의뢰, 수사의뢰 등)를 개시할 수도 있음(※ 이는 각 학교 규정에 따르도록 함).
-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 당사자 간 해결절차를 선택한 경우, 해결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언을 하는 등 후속 상담을 진행하여 당사자 간 해결을 조력함.

- 상담종결 단계에서 앞서 진행된 상담내용과 절차들을 정리하고,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보존함.
- 기록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내용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별도 보관하는 등 보안 유지.

## 마. 상담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들

### 1) 1단계 : 접수상담

#### 가) 사건 개요 파악

####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개방형 질문들

-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 질문할 때는 단답형보다 서술형으로 묻는 것이 용이함.
- 서술형 질문은 답하는 사람이 많은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으로 개방형 질문이라고도 함.
- 6하원칙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지만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기 보다 답변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관건임.
- 피해자의 답변이 일목요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정보를 추려내야 함.

-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언제(when)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 어디서(where) 일어난 일인가요?
-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what/how)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 그 사람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 나) 증거정황 정보 파악

#### 정황증거 및 관련정보를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들

- 대부분의 경우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건 관련 주변인, 정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당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데 유용함.

- 사건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일회성인지 여부 등 사건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 피해당사자로서 어떤 자료가 사건처리에 유용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모두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

-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그 일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나요?
- 혹시 당시에 그 행위를 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 그 당시 전후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 피해경험에 대해 함께 상의한 주변 사람(친구, 동료, 선배 등)이 있으신가요?
- 그 일을 기록한 일지나 이 일과 관련하여 상대와 주고받은 말, 문자나 메일, 치료증빙 등 증거가 될 만한 정황자료들이 있을까요?

다) 피해자 대응 및 가해행위자의 사건전후 행동 파악(※ 신고 접수 후 조사 시에 질문할 수도 있음)

#### 피해자 대응 및 가해행위자 전후 행동을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들

- 사건 발생 당시 각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파악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의 개연성을 탐색함.
-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적 언행으로 성적 모욕감, 성적 굴욕감이 유발되어야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당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함.
-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이 어려웠다면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음.
-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말하도록 독려함.

- 피해 당시 상대방(가해행위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 그 당시 상대방(가해행위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했거나, 표정이나 제스처, 행동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어요?
- 상대방의 행동에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한 순간에 어떤 상황 · 느낌 · 생각이어서 그랬던 것 같나요?
- 피해 이후 가해행위자에게 어떻게 대응(행동)하셨습니까?
- 피해 이후 가해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 가해행위자가 이전에도 성희롱/성폭력 언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가해행위자가 이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라) 사건이 야기한 고충(어려움) 파악

#### 사건이 야기한 고충을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들

-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임.
-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임.
- 답변을 통해 피해자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그때 심경이 어땠나요?
-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 그 행동에 대해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 그 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 혹은 어려움을 받으셨나요?
- 그 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마) 상담신청 계기 및 원하는 것 파악

#### 고충상담 계기/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들

- 상담신청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자 함.
- 내담자가 주변에 대해 기대하는 바에 대해 알 수 있음.

- 사건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세요?
- 상담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말씀해주세요.
- 가해행위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 고충상담창구에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 주변인이나 학교관계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주세요.

## 2) 2단계 : 상담과정

## 가)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 파악

## 피해자의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방형 질문들

-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음.
-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당시 사건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재정의 하도록 조력함.
- 현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음.
- 가해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임.

- 피해를 겪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피해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고 자존감이 낮거나 자책감이 큰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받도록 안내하여 내면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그 당시 상대방(가해행위자)은 무슨 생각과 마음이었을까요?
- 사건에 대해 혹은 가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갖고 있나요?

## 나)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과 가장 두려운 것」 탐색

-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해결 방향을 탐색하여 피해자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해결방안을 선택하도록 돕기.
- 사건해결 과정에서 가장 두렵고 염려스러운 부분, 2차 피해의 두려움을 탐색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피해자와 상의하기.

##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과 가장 두려운 것을 탐색하는 개방형 질문들

- 피해자들이 위축되고 걱정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임.
- 피해자 스스로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과도하게 우려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탐색할 수 있음.
-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현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음.
-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음.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탐색해 볼 수 있음.

-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세요?

- 본인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가요?  
이 경우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 본인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선택한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최상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 가해행위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 상담기구에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 주변인, 학교관계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요?
- 심의위원장, 기관장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 다) 피해자와 의논해야 할 다양한 사건 해결방식과 장단점

## (1) 무대응

- 장점  
- 없음.
- 단점  
- 피해자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음.  
- 가해행위자 스스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가해행위가 지속되거나 점차적으로 더 나빠지고 반복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음.
- 피해자가 무대응을 선택하는 이유  
-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주변의 시선, 사실이나 허위의 소문, 학교나 수사기관 등이 자신의 피해를 믿어주지 않을까봐 등.  
- 피해에 대한 회피·기피의 심리 기제 : 피해를 직면하여 감당할 자신이 없음, 사건해결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투입을 원치 않음.

## (2) 가해행위자와의 개인적 해결

- 장점  
- 시간과 에너지 소모 및 소진의 정도가 적음.  
-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과 이를 통한 유능감, 자신감 향상.
- 단점  
- 사건당사자의 지위나 업무관계 및 가해행위자(혹은 주변인)의 성인지 감수성 등이 피해자 요구사항의 수용에 영향을 미침. 가해행위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문제제기 당한 가해행위자가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3) 중재(조정, 합의) 처리**

- 장점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고,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에 기초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 사안의 내용은 물론 당사자들을 포함한 사건관련자들의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보장 수준이 높음.
  - 사건해결 과정에서 가해행위자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건해결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 및 소진 정도가 비교적 적음.
- 단점
  - 사건 종결 이후 합의사항 불이행 가능성 있음.
    -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중재 과정에서 합의사항의 불이행 시 상담기구에서 후속조치(규정에 따라 조사 후 심의, 징계 요청 등)할 수 있음을 중재서약서에 기재할 것.
  - 사건 종결 이후 문제의 재발, 소문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중재 과정에서의 주의 조치, 후속상담, 피해자·가해행위자 모니터링 등으로 예방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 중재 가능한 상황
  - 사건의 성격이 위중하지 않아(조사·심의 절차를 가더라도 징계 결정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사안) 학교의 상담기구 개입하에 사건당사자 간 합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한해 처리 가능.
  - 당사자들의 비밀유지 요구수준이 높음.
  -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진술이 일치되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사건의 해결방법에 대해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성사되는 경우.

**(4) 조사 및 심의 처리**

- 장점
  -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방지 책무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행위자 징계를 취할 수 있음.
  - 사건의 종결 이후 재발방지 수준이 높음.
- 단점
  - 조사·심의 절차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음.
  - 조사·심의 절차과정 중 당사자의 소진 정도가 높을 수 있음.
  - 상담기구의 조사면담,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결과(징계처벌 등)가 실제 사건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조사 및 심의처리가 필요한 상황
  - 사건의 성격이 위중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 불일치하는 경우.
  - 당사자들 간의 개인적 해결 혹은 조정 및 중재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 가해행위자와 관련하여 유사한 종류의 상담 혹은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 경우.
  - 사건의 성격이 당사자 간의 개인적 노력이나 상담기구의 개입으로 사건이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

※ 기관장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상황

- ① 성폭력범죄 수준의 행위 수위가 높은 경우.
- ② 장기적, 반복적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심리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 ③ 재발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④ 가해행위자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국가기관 해결**

- 장점
  - 국가기관(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및 외부 전문기관 개입하에 공정한 조사심의 가능.
- 단점
  - 사건처리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교육부 등 정부에서 마련한 온라인 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사안이 학교에 송부되어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학교 상담기구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함.

**(6) 사법기관 해결**

- 장점
  - 피해자가 사법적인 판단, 사법적 처벌을 원할 때 필요함.
  -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학교의 조사과정 없이도 징계 처벌 가능함.
- 단점
  - 대부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사법체계에서의 증거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당기간(1~3심 진행 평균 2년 이상 소요) 동안 피해자의 시간과 에너지 소모 및 소진의 정도가 큼.
  - 학교의 규정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학교에서의 징계 절차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음.
  - 사법처리 기간이 길고 학교의 징계절차가 유예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그 기간 안에 가해행위자가 졸업하는 경우도 있음.
    - ※ 최근 사법부의 양성평등적 시각 및 성인지 관점에서의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판례<sup>10)</sup>가 피해자 중심 판례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

1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3) 3단계 : 상담종결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업무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지원을 이행해야 함.

#### 가) 피해자가 학교 조사 및 심의 처리를 선택한 경우

##### (1) 신고 접수

- 피해자는 사건 신고서(조사신청서 등 학교서식)를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담당기구는 신고인에게 '사건접수 및 조사개시 고지' 문서와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안내문 발송.

##### [문서 내용]

관련근거, 조사개시(신고일시, 고지대상), 서류제출 기한(서약서, 진술서, 증거정황자료), 조사대상 및 방법, 사건처리절차, 피해자의 권리, 피신고인의 권리, 학교 규정 첨부

##### (2) 피해 서면진술서 제출 안내

- 피해 서면진술서(사건 경위서)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안내.
  -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사건에 관한 세부사항, 학교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이 포함.
  - 피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위주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 작성.
  -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영향, 즉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신체·심리·사회적 영향 또는 일상의 어려움 등을 그대로 표현하되, 과장 혹은 축소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기술.
  - 사건처리에 있어서 학교에 바라는 사항, 담당기구에 바라는 사항, 가해행위자에게 바라는 사항 등 피해자의 요구사항 기술.
- 업무담당자가 피해자의 진술서 작성에 영향을 주어 특정 방향으로 기술하게끔 유도하거나 작성 제출된 진술서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만 상담단계에서 진술한 사실관계 내용 중 누락되거나 초기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함.

##### (3) 증거정황 자료 제출 안내

- CCTV 관련 영상, SNS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 등의 대화내용, 통화기록, 주고받은 이메일, 피해일지,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 사건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피해를 겪고 난 후, 그 내용을 처음으로 이야기 한 주변인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하거나 서면진술서 제출 안내.
-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담당기구는 '자료 제출 확인서(제출자 인적사항 및 서명, 제출형태, 제출 목록, 접수자)' 작성하여 제출자료에 대한 기록물 관리 포함.

##### (4) 비밀유지 및 민감정보처리 동의 안내

-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 ※ 학교에 따라 서약서 작성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서약서를 받지 않고 대신 피해자 비밀유지 구두 당부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사건처리기간 중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건의 양 당사자에게 비밀유지 요청을 하고 당사자 서약서(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명시)를 받는 것이 필요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민감정보 처리 목적 및 처리부서, 민감정보 내용에 대해 설명 후 동의서 작성.

##### (5) 조사 및 심의 절차에 대한 안내

- 학교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
- 피해자의 권리, 학내 상담기구의 역할 안내.
- 조사 및 심의 과정의 경과 안내.

##### (6)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상의하여 실행

-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상담
  - 피해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고 후유증을 예방.
  -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링 및 심리지원.
- 가해행위자와의 분리
  - 같은 수업을 듣지 않도록 수강신청 변경.
  - 동아리 활동, 단체대화방 등 SNS 온라인 공간에서 분리.
  - 피해자의 일상공간(강의실, 도서관, 학생식당 등)에서 가해행위자와 접촉지점이 없도록 동선 조정.
  - 지도교수 변경.
  - 업무 공간 분리 등.
- 학습권, 생활권, 교육권, 근로권 보호를 위한 조치.
- 의료 및 법률 연계 지원.

#### 나) 피해자가 중재처리를 선택한 경우

##### (1) 목적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중재처리 의사에 따라 사건개요 파악, 어려움 및 바라는 사항 청취, 이를 가해행위자가 실행함으로써 학교 공동체 내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도움.

##### (2) 개요

- 상담단계에서 중재 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담당기구의 개입하에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간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담단계에서부터 진행할 수 있음.

- 이는 별도의 조사나 조사·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며, 가해행위자의 행위 인정 및 자발적 반성,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교육 이수,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해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노력 등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함.
- 중재처리 이후에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심리적 고통 등에 대해서 치유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으로 피해자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
- 중재 처리로 사안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재발, 소문, 비방, 보복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행위자 합의사항 이행뿐만 아니라 사건관련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만전 기함.

### (3) 절차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중재처리 요청에 대한 명시적 의사 확인(중재요청서 서식 작성) ⇨ 담당 기구가 가해지목을 받은 가해행위자에게 고지 ⇨ 가해행위자 면담에서 사실관계 일치 및 가해행위자의 행위 인정 ⇨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에게 바라는 중재사항에 대한 가해행위자의 수용 의사 있음 ⇨ 담당기구가 중재합의서(초안) 작성 ⇨ 작성된 합의서 내용 사건당사자 양측 확인(당사자 간 수정 요청 시 담당기구가 소통채널 역할) ⇨ 합의서 상호 서약(학교에 따라 가해행위자 중재이행 서약서를 추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 사건당사자 및 담당기구가 합의서 각 1부씩 보관 ⇨ 가해행위자의 서약된 구체내용 이행 ⇨ 사건종결 및 후속처리

### (4) 중재요청서 포함내용

- 사건당사자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등)
- 중재요청 사유(사건 개요)
- 중재요청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작성일시, 작성인 서명
- 접수일시, 접수인 서명

### (5) 중재합의서 포함내용

- 합의당사자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등)
- 합의사항(중재이행사항 구체적시: 피해자에 대한 접근접촉금지, 공간분리를 언제까지 어느 건물에 출입 금지, 재발방지 교육 몇 시간을 언제까지 수료하고 담당기구에 수료증 제출, 재발방지역속, 사건내용과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
- 가해행위자 서약사항(행위 잘못 인정과 반성, 합의사항 성실히 이행, 합의 불이행시 대응 사항 적시)
- 피해자 서약사항(합의사항으로 사건종결 동의, 사건내용과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
  - ※ 필요하다면 같은 사건에 대한 재신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받을 수 있으나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됨
- 일시 및 당사자 서명

### (6) 가해행위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실행 가능한 중재사항들

- 사과문 작성 : 사과 대상
  - 구체 언행 내용, 행위발생일 등 명기하고 행위사실 인정
  - 가해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가해행위의 심각성 인지, 반성과 자기성찰
  - 피해자 입장 이해와 상처 공감
  - 재발방지 약속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개인적 연락이나 접촉 금지 약속
  - 사건 비밀유지 약속
  - 작성일시, 가해행위자(소속/직위/성명) 서명
- 가해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전문상담, 재교육 등)
- 사회봉사활동 이수
- 공간 분리 및 학내활동 제한(휴학, 수업 분리, 동아리/학회 탈퇴 등)
  - ※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금전적 배상은 학교담당기구가 배상에 개입하기보다는 배상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 (7) 중재처리 유의점<sup>11)</sup>

-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함. 피해자가 조사·심의 절차 과정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중재를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피해자의 염려, 중재 선택 이유, 진정 원하는 것 등을 파악하여야 함. 그리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중재요청서 등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함(※ 만에 하나 담당기구가 중재를 강요했다는 문제제기 등에 대한 대비 필요).
- 중재로 해결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는 피해자가 중재결렬로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중재가 결렬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하여 피해자가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
- 중재 합의를 시도했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정이 정한 대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사건처리 형태로의 전환을 피해자와 함께 고려.
- 중재는 지목을 받은 가해행위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끼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교육적 맥락을 포함한 해결방식임.
- 중재는 행위 정도가 범죄 행위가 성립될 만큼 심하지 않고 피해자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며, 가해행위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가해행위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재교육 이수와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가해행위자의 자발적 공간분리 등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의 경우 중재의 가능성이 높음.
- 가해행위가 위중하거나 성폭력에 이르는 범죄행위일 경우 학교의 조사심의 절차 혹은 사법기관의

11) 노정민, 김현정, 이경희, (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일부 보완함.



- 수사절차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피해자가 숙고하도록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함.
- 피해자가 학교처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의 우려로 조사 및 심의처리 대신 중재처리를 요청한 것이라면 '학교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
  - 피해자가 중재사항으로 행위책임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요구할 때에는(부모의 공개사과, 학교 출입금지 등) 이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행위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담당기구 내에서 의논하여 정리한 후 피해자와의 충분한 상담과정을 통해 설명하여 피해자가 이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행위 책임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피해자가 요구하는 중재 사항이 가해행위자의 노력 수준을 넘어서 학교 행정 절차로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예: 징계 등)는 중재처리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심의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재처리 과정에서 도출되는 합의는 일정한 형식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상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업무담당자의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업무담당자는 중재 처리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심의위원회 소집방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보관함.
  - 중재처리일지라도 추후 조사·심의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와 상담할 때 이를 설명하고 미리 녹음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초기진술을 녹음하는 것이 안전함.
  - 중재처리 과정에서 가해행위자와 피해자가 대면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가 대면을 원하고 사건당사자 대면과정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업무담당자가 배석하여 당사자 간에 감정이나 의견의 충돌, 공격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함. 대면 전에 대면 규칙을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음. 대면과정에서 추가 피해 발생이 예측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대면을 중단하도록 함.
  - 해당 사건이 중재처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추후 학교심의위원회 개입 등의 학교 내 처리가 불가함을 양측 당사자에게 확인받고 서약서 내용에도 포함함(※ 같은 사건에 대해 재신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면 서약서를 받지 않아도 됨). 관련 규정에 가해행위자가 상담소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해행위자가 중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교의 절차(징계 요청 등)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고 서약서 내용에도 포함함.
  -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언급·유포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서약서 내용에도 포함함.

#### (8) 중재처리 과정에서의 가해행위자 면담 유의점<sup>12)</sup>

- 가해행위자에게 면담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시킴.

#### [가해행위자 면담 목적]

: 중재절차는 담당기구에서 피해자의 중재 해결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절차로서, 가해행위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중재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절차임을 설명함. 조사·심을 통해 징계 처벌하는 절차와는 다름을 설명함. 가해행위자에게 사건 사실관계 확인과 중재 의사 확인, 중재사항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중재사항을 조율하여야 함.

- 담당자는 가해행위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 포함)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나 비난, 위협, 원치 않는 면담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가해행위자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당사자 서약서를 받기(※ 중재 절차에서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행위자 모두 당사자 서약서(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명시)를 받는 것이 좋음).
- 중재해결이 가해행위자의 책임 축소나 회피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다) 피해자가 학교 처리 절차 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학교규정과 처리제도에 따라 사건을 다룬다고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므로 피해자가 학교 절차 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학내 처리 절차 진행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음.
- 피해자가 상담만 받고 어떠한 처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의 대부분은 피해 인지시점에서는 심리·신체 증후들로 인하여 사건 해결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원하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원하지 않는 내용이나 방식을 배제시키면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기대와 욕구들과 만나게 되는 점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의 '원하지 않음'의 what, how, why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 학교 절차 개시를 원하지 않는지를 탐색하고 피해자가 갖는 두려움이나 자책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과 현실에 대하여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피해자 자신을 위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피해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감정적 혼란이나 어려움을 탐색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여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상담신청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함. 당장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상담신청인에게는 시간을 갖고 결정하도록 지지함.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서울교육 2016-9, 23쪽



- 가해행위는 언제든지 반복되고 심화될 수 있으며, 가해행위자의 행위가 학교에 해가 되고 징계되어야 할 규정위반 행위라면 성희롱·성폭력 규정을 넘어 학칙(학생)/인사규정(직원)/학교정관(교원)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안내함.
-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은 종결하되, 기관장(총장)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책무가 있으므로 가해행위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구성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될 수 있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학교 개입 절차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의사 파악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상담만 하고 조사개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업무담당자는 피해자를 위한 사건 해결의 대안이 있는지, 또한 피해자의 교육환경이나 근무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의 생각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상의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강조하여 주지시킴. 피해자가 '학교가 피해자 보호 조치 하에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움.
- 성폭력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함.
- 외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담당기구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규정에 신고 가능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보를 알려주어 신고가능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함.

## 라)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의 개인적 해결이나 외부 절차를 원하는 경우

- 피해자가 개인적 해결이나 외부 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 개인적 해결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혹은 제3자)가 가해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가해행위자가 이를 수용하고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함.
- 상담자는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가해행위자와 소통할 때는 피해경험에 대한 나-전달법과 비폭력 대화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원하는 사항을 전달하여 가해행위자가 피해자의 입장을 역지사지하여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코칭함.
-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행위자를 1:1로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되면 상담자가 동석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동석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안내함.
- 가해행위자에 대한 대응 없이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상담만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치유회복 상담을 통해, 신체·심리·사회적 안정을 찾은 다음 임파워링 상태에서 사건 해결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도움.
- 국가기관이나 형사소송 등의 외부 해결 절차를 원하는 경우 각 해결 절차와 해당 연락처를 안내함. 특히 학내에서 가해행위자와 마주치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유사 사건 재발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코칭하는 것이 필요함.

## 마) 상담기록 보관

- 상담기록은 피해자의 지속 상담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임.
- 상담단계가 마무리되면 상담신청요지-상담내용-처리결과와 '상담일지'를 문서화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당사자 신원을 비실명 처리하여 상담기록을 각 학교의 문서보관 기한에 따라 보존함 (학교마다 상담기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상담신청 요지]

- 피해자가 주요하게 호소하는 문제를 목록화하여 기재
- 가능하면 상담신청인의 핵심적인 말을 그대로 인용
- 담당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이 상담신청인의 말과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

### [상담내용]

- 상담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욕구와 기대, 필요로 하는 도움 제공 기재

### [처리결과]

- 상담종결일자과 종결사유, 처리결과와 결과통지일자 기재

- 상담기록은 업무담당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함.

## 3. 2차 피해 이해와 대응 그리고 예방



### 가. 대학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정의

#### 1) 2차 피해란?

-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동료, 주변인, 언론, 여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함.<sup>13)</sup>
-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일상·학업·업무·대인관계 곤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주변인·가해행위 당사자의 말이나 소문 또는 기타 다른 방법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sup>14)</sup>

13)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4) 김영희, 김진희, 노정민, 심현정, (2017),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81쪽

-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sup>15)</sup>
- 잘못된 사회통념으로 인해 가해행위자보다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고, 피해양상이 복잡함.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 2) 주요 객체별 2차 피해

가) 2차 피해는 피신고인과 주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sup>16)</sup>

피신고인(가해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침</li> <li>-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함</li> <li>-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헐담하거나 피해자 탓하기</li> <li>- 지도교수 등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함</li> <li>-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행위자 옹호와 두둔</li> <li>- 사건 내용과 당사자 개인 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li> <li>-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헐담</li> <li>- 피해자 비난</li> <li>- 사건에 대한 선부른 판단</li> <li>-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li> <li>- 피해자에게 가해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li> <li>-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가해행위자를 화해시키려 함</li> </ul>

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항. 2019년 12월 25일 시행

16) 김영희, 김진희, 노정민, 심현정. (2017).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82-83쪽

나)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다음과 같음.

- 사건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
-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임.
-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함.
- 가해행위자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함.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 간 화해나 합의를 중용함.

다) 이미경(2012)은 성폭력 사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사례를 6가지 범주로 정리하여 인터뷰 참여자에게 가장 자주 겪었던 2차 피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sup>17)</sup>

1. 피해자 비난, 화간 의심(72회)
2.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54회)
3. 합의 강요(47회)
4.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24회)
5. 절차고지 안내 부족(23회)
6. 반복진술, 신뢰관계인 동석거부, 무고 위협(19회)

## 3) 2차 피해의 유형

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

- 피해자의 신상과 사생활이 노출되어 평소행실, 학업능력, 성격, 연애편계 등이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에 알려지고, 편견과 왜곡으로 비난받게 됨.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학업 수행이나 대학생활 영위를 어렵게 하며, 이후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례<sup>18)</sup>]

언니들이 그 사람[가해행위자]의 같은 학번 동기여서 그 언니들한테도 이 얘기를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말 계속 나오는 것도 싫었고, 의심 당할 게 제일 싫었어요. ‘너 저 선배 좋아서 쫓아 다녔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게. [가학하고 학교 다니는 거네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겠네요. 대면하는 것도 안 좋는데 소문까지 도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안 나가서 출[석]F를 많이 맞았어요. ‘진짜 오늘은 난 쟈 못 보겠다’ 하는 날에는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학교[학사경고]를 맞았죠.

17)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8) 이미경, 윤덕경, 정지연, 김정혜, 정수연.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정책보고서 (11-1342000-000322-01). 132-133쪽(사례5, 대학원생)

## 나)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에 대한 피해

- 대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대다수가 아는 관계에서 이뤄지므로 사건에 대한 제보자나 참고인 등 제3자의 행동이 중요함.
- 이때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주변인에 대하여 가해행위자 혹은 가해행위자 주변 제3자들이 혐담, 비난, 보복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이 상처를 받는 2차 피해는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들의 사건지원을 어렵게 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함.

[사례<sup>19)</sup>]

[단톡방 멤버였다가 성희롱 내용을 건네 준 남자동기에 대해 언급] 그 친구가 되게 걱정해요... 전 되게 고맙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은혜 갚는 마음으로 '복학하면 내가 많이 놀아줄게'라고 이야기 하죠... 저희가 학교에 요구했던 것도 이런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것인데]. 그 친구가 걱정이 많죠.

## 나. 사건처리 단계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 1) 사건을 알리는 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외부에 사건을 알리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피해를 드러내기 이전 피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받지만, 모든 피해자가 지지받는 것은 아님.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은 가해행위자보다 피해자의 행실 또는 평소 언행을 문제 삼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기관(학교, 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므로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것을 종용하는 것도 2차 피해임.

## 2) 접수 및 상담 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행위자를 분리시키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이는 위계에 의해 나타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특성 상 누군가 알고 있거나,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해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합의 중용 등의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임. 이때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기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모든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사건처리 담당자는 학내 구성원과 해당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19) 이미정, 윤덕경, 정지연, 김정혜, 정수연,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정책보고서 (11-1342000-000322-01), 133쪽(사례2, 학부생)

사건처리과정에서 우연히 사건을 알게 된 학내 구성원이 있다면 비밀보장 서약서 등에 서명을 요청하고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것도 방법임.

-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에게 비밀보호의 의무란 본인이 아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합구의 의미가 아님. 피해자를 지지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려운 절차에 동행해주는 등 주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소문을 내지 않도록 비밀보호에 힘써달라는 뜻임.
- 담당자는 접수 및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 즉 2차 피해의 두려움을 탐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할 수 있음.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를 당부함.

## 3) 조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조사과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가해행위자 조사를 진행함. 이후 피해자와 가해행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어짐.
- 피해자, 가해행위자 조사는 반드시 별도의 장소/시간에 이뤄져야 함.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 같은 장소에 있거나, 마주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음.
- 만약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함.
- 피해자에게 공격적 표현,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중립적 표현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와 신뢰감을 쌓는데 도움이 됨.

## 4) 심의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심의위원회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나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고,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권장함.
-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사건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위원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통념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사건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함.
- 심의위원회에 비밀유지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서약서 서명을 요청함.

## 5) 징계 및 후속조치 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사건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는 늘어날 수 있음.
- 가해행위자 인권을 이유로 징계 정도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작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함. 징계결정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심 청구 기회도 갖지 못함.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알린다는 것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대응과 예방

### 1) 2차 피해의 영향

#### 가) 피해자의 고통

- 1차 피해보다 피해가 가중되며, 심리적 상처도 가중됨.
- 타인, 나아가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 일상/학업/업무의 곤란.

(중략) 성희롱은 전형적인 외상의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은 심리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희롱을 고발하는 과정과 뒤따르는 법적 절차가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sup>20)</sup>

#### 나) 기관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구성원 간 불신 팽배, 기관 및 조직 이미지 하락, 기관 및 조직 내 여성혐오/배제 현상.

### 2) 2차 피해 예방과 대응방식<sup>21)</sup>

#### 가) 피해자

- 학습권과 근로권 보호를 대학에 요청,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기.
- 가해행위자를 직접 만나 해결하기보다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어려움을 전달하기.

#### 나) 가해행위자

-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규정에 따라 2차 피해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보다는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추천함.
- 용서와 합의 역시 피해자의 선택임을 인지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20) Jon G. Allen, (2010). 「트라우마의 치유」(권정혜·김정범·조용래·최혜경·최윤경·권호인 공역). 학지사, 33-34.

21) 윤덕경, 이미정, 최윤정, 장희영,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교육부 연구보고서.

### 다)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주는 말은 자제하기.
- 사건을 피해자의 평소 태도, 능력, 성격 등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기.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내지 않기.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 하지 않기.
-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하기.
- 가해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을 들지 않기.

### 라)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 내 여론과 관련인을 모니터링하기.
- 사건조사에 협력한 조력자들에 대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기.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행위자와 공간분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조치하기.
- 가해행위자에게 후속조치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하며 이때 2차 가해행위 금지와 가중 처벌에 대해 고지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전 교원 및 전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기.

## 4. 조사단계



### 가. 피신고인 고지

-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행위가 지목된 피신고인에게 사건접수 사실을 고지함.
- 고지방법은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피신고인 고지 문서(공문) 발송을 병행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
  - 사건접수를 알리는 고지 안내문에는 사건접수 사실과 주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함.

**[문서 제목]** '사건접수 및 조사개시 고지'

**[문서 내용]** 관련근거, 조사개시(신고일시, 고지대상), 서류제출 기한(당사자 서약서, 진술서, 증거정황자료),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학교 규정 첨부



## 나. 조사

- 조사는 접수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당사자를 포함한 관련인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속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가려내고,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제출 내용이 취합된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심의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함.

### [조사보고서 포함 내용]

- 사건 특성(발생일, 신고인, 신고인/피신고인과의 관계, 행위특성, 사건개요, 신고인의 원하는 사항)
- 사건관련인 관계
- 사건처리경과
- 신고행위 사실관계 확인(진술서, 증거정황자료, 조사일지)
- 사실관계 진술 대조표(신고행위, 신고인 진술, 피신고인 진술, 참고인 진술)
- 자문의견 등
- 사실인정 근거 확보를 위한 심의 방향 검토
- (사실인정, 판단, 처분) 결정(안)
- 제출자료 목록
- 첨부(신고서, 진술서, 제출자료, 조사일지, 자문의견서 등)

- 사건을 신고 접수받은 날로부터 학교 규정이 정한 조사처리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음.<sup>22)</sup>
- 조사는 학교가 설치한 담당기구의 업무분장에 따라 상담 및 조사기능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별도의 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의 규정을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함. 다만 조사기구 구성 시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조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요함.
- 조사자는 조사 시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가해행위자), 당사자(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 관련인의 진술 청취,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함. 진술을 청취할 때는 비밀유지 및 진술의 객관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여 녹취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상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나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됨.
- 사건 조사 시, 명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사건 행위와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이때 조사 대상자가 수치심이나 공격받는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자가 당사자에 대한 편견 없이 인간 존중의 태도와 예의를 갖추고 공정하게 조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22)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공공기관 표준매뉴얼에서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사건처리의 경우 이러한 조사기간이 행정실무에서 적용되기에 그 기간이 짧아 많은 대학에서는 자체규정을 통해 조사기간을 정하고 있음.

- 신고인(피해자) 조사 시에 피신고인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내용은 피신고인 조사 시에 질문하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사법기관의 고소 사건 및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진정 사건)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명시적으로 원하여 학교 조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교육부에 민원 제기 시에는 교육부가 해당 학교에 조사 요청을 하게 됨).
- 조사 및 심의처리 경과 개요를 사건당사자에게 1-2주 간격으로 발송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유지함.

## 1) 피해자 조사

### 가) 조사방법

- 피해자에게 청취한 상담 내용 재확인.
- 피해 당시 불편한 감정(모욕감, 수치심 등)의 재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할 때에는 안정을 찾도록 돕고 피해자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조사를 재개함. 피해자가 말하기 힘들다고 하거나 심리적·신체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일 때에는 조사자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지금 조사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확인하여야 함.
- 피해자가 호흡 곤란이나 마비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조사자는 당황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숨을 크게 쉬어보라고 하며 함께 심호흡을 몇 번 하거나 잠시 일어나서 걷도록 돕거나 주변에 무엇이 보이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거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과거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현재로 나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이러한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체 증상이 지속되거나 응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함.
-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정보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 사건 당사자(피해자 및 가해행위자)의 관계
  - 사건(문제가 되는 행위) 발생 장소, 시간, 당시 상황, 목격자 여부 등
  - 사건(문제가 되는 행위) 이후 가해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피신고인의 반응
  - 이후 반복된 적은 없는지 혹은 이전에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반복성)
  - 피해경험 이후 누구와 해당 사안을 상의했는지
  - 피해사실을 보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
  - 현재 힘든 점
  - 추가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처리 방향과 원하는 사항(가해행위자, 주변인, 학교, 담당기구 등)

〈표 II-2〉 피해자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질문의 예시<sup>23)</sup>

부적절한 조사 질문 ※ 공격적 표현, 폐쇄형 질문	적절한 조사 질문 ※ 중립적 표현, 개방형 질문
• 왜 이제야 신고하는 거죠?	• 신고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 왜 그 자리에 간 거죠? •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나요? • 왜 늦은 시간에 거기에 가셨어요? • 왜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	• 그 모임에 간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거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술은 어느 정도 마셨나요? 술 마신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나요? 정신이나 몸 상태가 어땠는지요?
• 왜 저항하지 않았어요? • 동의한 거 아닌가요? • 가해행위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OO를 만졌어요? • 같은 여자(남자)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 두 사람이 서로 사귀었나요? • 본인이 좀 유난스러운 것(예민한 것) 아닌가요?	• 피신고인의 행동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예: 그가 키스하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머리를 돌렸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유/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상대방이 어떤 말(직접화법으로)과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 당시 어떤 생각/느낌이 들었나요?
• 상대방이 처음부터 성희롱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본인이 술을 잔뜩 먹은 건 아닌가요? •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요.	•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술 마신 것에 대하여 좀 더 말씀해 주세요. • 그때 어떠한 생각/느낌이 들었나요?
• 가해행위자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 가해행위자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으세요?	• 피신고인/사건에 대한 본인의 심경을 말씀해 주세요. •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 나) 유의점

- 사건접수 과정에서 서면작성과 제출에 관한 안내와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 그리고 목격자, 참고인 등의 개인신상정보 및 진술내용은 모두 비밀이 유지되고, 학내에서 징계 요청 시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면 피해자 비실명 처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됨을 설명함. 또한 검찰, 법원 등에서 제출 요청이 있을 시에 제출될 수 있음을 설명함.

23) 노정민, 김현정, 이경희, (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피해자 조사 시에 진술 내용 중 피신고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여 이 부분은 피신고인에게 질문하지 않도록 함. 피해자에게 이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판단과 처분 결정을 하지 않음)을 설명해야 함.
- 피해자에게 사건처리과정 중 걱정되거나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묻고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줌으로써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가 사건처리절차 등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설명과 안내문, 규정 등을 종이문서로 주거나 이메일에 첨부하여 주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에게도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를 당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가 담당창구에 요청하고 싶은 세부사항을 파악함.
- 신고접수 이후 진행되는 교내 절차는 모두 피해자와 상의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안내함.
- 사건처리과정 중 피해자가 문의 혹은 요청할 것이 있을 때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음을 안내함.
- 피해자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담당자와 공유하여 담당 기구가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2) 참고인 조사

## 가) 조사기법

-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목격자 등)을 면담함.
- 이때 피해자와 참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피해 정황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하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피해자로부터 어떤 내용 또는 당시 상황을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함.
-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받은 참고인과 면담할 때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표현을 기억나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야기를 전달받은 참고인이 해석하여 참고인 자신의 표현으로 상황을 진술하는 것보다 당시 그때의 상황을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전달할 때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함.
- 피해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전했던 내용은 피해자의 기억이 생생하고, 감정과 사실적 상황이 있는 그대로 담긴 표현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어떤 표현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임.
- 참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진술을 비교해 보고 일치하는 점과 다른 점, 특별히 살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함.

## 나) 유의점

- 사건조사를 위한 참고인에게 유도질문을 하거나 사안에 대해 단정 짓고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사건 관련하여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면담 시에는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하며, 참고인들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숙지하고 참고인 서약서에 서명을 받기.

#### 다) 참고인 서약서 포함내용

- 인적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참고인의 권리
- 참고인의 의무(조사절차에 성실 협조, 위증하지 아니함, 비밀유지)
- 서약일, 참고인 서명

### 3) 피신고인(가해행위자) 조사

#### 가) 조사기법

-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고, 면담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피신고인에게 고지함.
  - 사건 신고접수 사실(신고일, 신고인, 신고내용)
  - 당사자 서약(사건 내용과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 등)
  - 사건진술서 작성하여 제출 요청(진술서 제출 기한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알림. 규정에 없을 때에는 담당기구 내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것을 알림. 대개 7~14일 정도의 기한을 줌.)
  - 신고인(피해자)에게 2차 피해 금지 서약
    - ※ 피신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에 포함 될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을 엄중하게 고지함.
- 조사처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공간분리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알림) 요청.
- 학교의 사건처리 절차 및 학교 규정 안내.
  - ※ 회의자료 비실명처리 및 비공개 원칙하에 조사심의처리 진행
-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거나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될 때에는 신고인 보호 차원에서 피신고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사건 처리함.
-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함.
- 피신고인 가운데는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여러 가지 감정적 혼란(두려움, 수치심, 분노, 피해의식 등)을 겪으며 경직된 방어와 회피의 태도를 보이기도 함.
- 피신고인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말하거나 해명하려 할 때, 우선 그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 하되 피신고인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함. 피신고인에게 현실을 잘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건 처리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과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림.
- 피신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사건해결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를 충실히 따르는 것

이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려 용기를 내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독려함.

- 피신고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 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다고 할 때는 이를 수용함.
- 면담 후에는 구술한 사실관계와 제출한 서면진술 및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함.
- 가해행위자의 대부분은 가해로 지목된 언동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때때로 면담할 때와 서면진술에서 부인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신뢰하기 어렵게 되므로 가해행위자의 진술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핌.

#### [예시]

최초 면담에서는 피해자와 만난 적도 없었고, 아예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식으로 부인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서면진술을 할 때는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니 피해자와 만난 적이 있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피해자가 너무 과민 하게 받아들여 억울하다는 식으로 진술이 바뀌기도 함.

- 때로는 가해행위자가 사건의 앞뒤 정황은 자세히 기억하는 반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 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된 상황만 기억 하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을 신뢰할 수는 없음.
- 음주를 발미로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음. 오히려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해 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안내하면서 가급적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찾아보도록 하여 가능한 한 상세히 진술할 것을 요청함.
- 기억이나 사실관계 진위여부를 가해행위자와 다투어서는 아니되며, 가해행위자와의 면담 과정 에서 확보한 내용과 서면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그대로 담음.
- 피해자(신고인)가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결정사항을 통지 받기를 원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피신고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므로, 피신고인 조사단계에서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함(피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고 피해자(신고인) 에게 이 사실과 징계 결정사항을 통지할 수 없음을 설명함).

#### 나) 유의점

- 피신고인에게 연락을 취할 때 녹음이나 기록을 통해 절차적 근거를 남김.
- 피신고인이 대면조사에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하거나 긴장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인간 존중의 자세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함. 또한 이미 사건을 판단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단어(가해자 등) 나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공정한 조사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사자는 사안에 대해 미리 판단하거나 단정을 짓지 말고 편견 없는 태도로 피신고인을 대면하여 진술을 청청함.



## 5. 심의단계



### 가.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은 각 학교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sup>24)</sup>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체 위원 중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비<sup>25)</sup>를 고려하며, 위원 중 성평등 및 성범죄 관련 외부 전문가<sup>26)</sup>를 포함하도록 권장함.

### 나.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준비

- 1)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안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결정함에 따라 담당 기구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안내' 문서를 발송하고, 신고인, 피해자(피해자가 신고인이 아닐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출석진술을 요청함), 피신고인, 참고인(심의위원회에서 참고인 출석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게 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소집 안내문서 포함내용]

- 수신(심의위원회 위원)
- 제목(\*\*년-\*사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 관련 근거(학교 규정 조항 기재)
- 위원 구성(명단 첨부) 및 회의소집 안내(일시, 장소, 안전)
- 첨부자료(학교 규정 및 매뉴얼, 심의위원 서약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 자료 등)

#### [심의위원 서약서 포함내용]

- 위원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사건 관련 일체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
- 서약일, 위원 서명

#### [신고인 및 피신고인 등의 출석통지서 포함내용]

- 사건번호, 출석인 인적사항

- 출석일시, 출석장소, 대기장소
- 불출석 사유 있을 시 상의
- 출석 거부 시 사건당사자 진술방어권 포기로 인정됨을 안내
- 대리인 동반 등 권리 안내(대리인 동반 시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
-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위원회 출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출석진술 대신 조사면담 진술 및 서면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전달하고 싶은 당사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림

\* 출석하지 않고 서면과 기존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살필 수 없는 지점이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본인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도록 함.

- 2) 심의위원회 출석진술 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 안내 및 대기 장소를 분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 일정을 따로 잡을 수도 있음.
- 3) 업무담당자는 사전에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를 확인함.  
\* 위원들이 사건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동일 학과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 제척함.
- 4)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이 제출한 진술서, 증거정황자료의 사본 등에서 실명을 모두 비실명 처리하여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모든 자료는 회의 현장에서 배부하였다가 회의 종료 시 회수함.
- 5) 비밀유지 의무, 2차 피해유발행위 예방 등을 위한 위원 서약서, 회의 수당 관련 행정 서류 등을 준비함.
- 6) 회의 녹취를 위한 녹음기를 준비함.

### 다.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각 학교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 1) 개최

가) 규정에 따라(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등 각 학교 규정 참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개최목적을 밝힘.

나)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심의위원 서약서 작성을 확인.

다) 심의위원들 가운데 제척 사유가 있거나 기피 또는 회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라) 회의진행 절차와 주의사항 안내.

- 발언을 원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피력함.

24)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6인~10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5)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원회의 성비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6) 여성가족부에서는 6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중 2명 이상은 성평등 및 성범죄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출석 진술 시 관련인에게 질문이나 발언 시 유의점 안내(질문 예시 등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좋음. 아래 조사기법 참고) (예: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이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신고인 심정을 공감하는 위로는 부적절함 등).

## 2) 조사 보고

- 피해호소 내용에 대한 피신고인의 인정 여부, 양측 당사자 주장에 대한 사실인정의 근거, 심의에서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2차 피해 등) 등을 보고.
- 피해자 보호 및 사건당사자 분리 등 임시조치 보고.

## 3) 출석 진술(당사자, 관계인)

### 가) 출석 진술 대기

- 대기 중 다른 출석 진술자와 만나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을 분리함.
- 출석 진술과 관련하여 당사자 권리와 의무를 안내(이 내용이 담긴 출석 진술 서약서를 받을 수 있음).
- 대리인 동반 시 대리인 서약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음.
- 심의위원 중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지 확인(공정한 사건처리와 심의위원의 보호를 위하여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전달하지 않고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찾기. 예를 들면 출석 진술 대기 중에 심의위원 명단을 종이로 보여주고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바로 회수하는 방법 등. 이때 사진을 찍거나 기록을 하려 할 때에는 심의위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설명하여야 함).

### 나) 피해자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핌.
-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요구사항, 하고 싶은 말, 사건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진술함.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하는 동반인(예: 상담기관의 상담사, 법정대리인, 가족 등)과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진술과정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어느 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핌.

다) 피해자의 입장확인을 마치면 필요에 따라 피해사실에 관해 알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참고인(목격자 등)이 출석진술 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참고인에게 출석진술 요청을 하여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진술 절차(출석진술통지서 발송 등)를 진행함.

### 라) 가해행위자(피신고인)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기회이며, 이 자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고,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신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의견을 피력하며 위원들은 피신고인의 입장을 청취함.

- 위원들은 피신고인의 진술에서 피해자,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이한 지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탐색하는 질문을 해야 함.
- 피신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사전에 제출한 서면진술과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내용이 동일한지, 다르다면 어느 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 신빙성과 일관성 여부를 판단함.

마) 출석진술 순서는 심의위원회와 의논하여 정함. 대개는 신고인(피해자) 진술을 먼저 하고 이후 피신고인 진술을 함. 참고인 진술은 필요에 따라 정하고 순서도 적절하게 의논하여 정함.

## 4) 심의 논의 및 의결사항 결정

가) 피해자와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경청한 후에는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각 당사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신빙성 여부를 살피고,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그 인정사실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 결정함.

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신고인 처분 판단(징계 요청 등), 피해자 보호의 구체 방안을 논의함.

다)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조치 및 현 상태에 따른 추가조치, 사안의 경중 그리고 피신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합의함.

### [심의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의결사항]

- 사실관계 인정
- 인정된 사실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행위의 심각성 판단
- 피해 범위 및 피해 영향 판단
-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피신고인과 피해자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의권고 결정(예: 사실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향을 참고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가해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서약과 재교육 등의 조정을 통해서 사안종결)(※ 합의권고 결정을 하지 않고 피신고인에게 재발방지 서약과 재교육 등의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성희롱·성폭력으로 의결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혹은 징계의 필요성 판단하여 징계요구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및 보호조치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기타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결정(예: 사건당사자 분리, 소속기관(단과대학, 학과 등)에 특별 예방교육 권고 등)

## 5) 폐회

- 위원장이 폐회하고 회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회수함.

## 6) 회의록

-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서명 및 위원장 결재 받음.
-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임.

## [회의록 포함내용]

- 일시, 장소, 안건, 심의위원(위원장, 당연직, 선임직), 자문위원
- 회의진행(개회선언, 위원소개 및 서약, 사건보고, 관련인 출석진술, 심의논의, 의결사항 결정)
- 의결사항(결정사항, 의결사유, 근거조항 명기, 필요한 조치, 징계요구 등)
- 폐회 선언
- 기타(회의 비공개원칙, 회의자료 첨부 명기)
- 기록, 위원확인

## 7) 심의위원회는 1회로 끝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소집될 수도 있음.

## 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 1)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사건 심의결과 서면통지(※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 피해자에게도 결과를 통지함).
- 2) 심의결과 내용을 문서로 간단히 고지하고 자세한 사항은 면담을 통해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음. 면담 시 문서 원본을 전달하는 경우는 심의결과통지문 수령확인서를 받음.
- 3) 피해자 면담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4) 피신고인 면담 시 심의결과 및 징계처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만, 불안 및 두려움 등을 살펴서 심의결과 사유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통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심의결과 통지 포함내용]

- 수신(신고인, 피신고인)
- 제목(사건심의결과 알림)
- 심의일시
- 심의결과
- 관련근거(학교 규정 첨부)

- 재심의 등의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학교 규정에 재심의 규정이 없을 때는 생략)

## [심의결과 통지문 수령확인서 포함내용]

- 수령인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서제목
- 문서 전달인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 [재심의 요청서 포함내용](학교 규정에 재심의 규정이 없을 때는 생략)

-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 재심의 신청사유 증빙 근거자료
- 재심의 일시, 신청자 서명

- 5) 재심의는 학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사법 절차를 거쳐 소송결과에 따름.

## 6. 징계 및 후속조치 단계



## 가. 징계 요청

- 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청 의결이 된 경우에 징계권자(총장), 징계실무부서(장)에 보안 공문과 징계요청서, 사건관련 자료를 제출함.
- 이때 문서 보안과 사건내용,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요청을 함(공문과 징계요청서에 기재).
-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기 원하지 않을 시에 모든 자료에서 피해자 실명은 비실명 처리하여 제출함.

## 나. 징계위원회와 피해자 연락 역할

- 담당기구에서 징계 요청을 할 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와 피해자가 연락해야 할 상황에서 담당기구가 중간에서 소통 역할을 함.
-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기를 원할 때 징계위원회에 이 사실을 전달함.

-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출석 진술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때 담당기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리고 출석 진술 의사를 물음.
- 피신고인(피징계요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은 피신고인이 속한 해당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피신고인에게 통지함.
- 피해자(신고인)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결정사항을 통지하겠다는 피신고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기구에서 피해자에게 징계 결정사항을 통지함.
- 징계위원회에서 피신고인 징계 결정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기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음. 이때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적용이 되는 교원과 직원인 경우에만 한함. 국가공무원법 75조 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처분사유를 설명하게 됨.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이거나 피신고인이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다. 사안 종결 문서기록 및 보관

- 사건처리 단계별로 일자, 시간, 대상, 주요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록.
- 민감한 내용이 적시된 자료와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유의.
- 종이형태의 문서 및 자료들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별도 보관.
- PDF 파일 등 전자문서의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별도 외장하드 또는 USB에 저장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 문서관리 및 보관 업무 담당자를 지정.
- 문서 열람 시 열람대장에 열람자, 일자, 목적 등을 명시하여 열람 기록 관리(누가 어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학교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 기본적으로 자신이 제출한 자료와 자신이 진술한 부분만 열람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제출했거나 진술한 부분은 열람할 수 없음. 심의위원의 질문 부분도 열람할 수 없음).
- 기록 보존 연한을 정하여(학교 내부 기준 마련) 연한이 지난 문서는 안전하게 파기할 것.

## 라. 후속조치 모니터링

-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심의결과가 결정되면 사건처리는 절차적으로 종결됨. 하지만 후속 조치로서 피해자와 피신고인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함.

### 1) 피해자

- 피해자의 심정과 일상의 적응상의 어려움 등 파악.
- 피해자가 자신 또는 가해행위자에 대해 분노하거나 억울함, 수치심, 죄책감 등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는 것은 아닌지 살핌.
-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담당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이나 회복 과정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 등을 살핌.

-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 더 이상 접촉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장기적으로 확인함.
-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학업/근로/교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변인들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함.
-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움.
- 중재로 사안이 마무리 된 경우 합의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가해행위자가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결과(재발방지 교육 수료 등)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도 이행 사실을 알림.
- 피해자가 주변인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 소문으로 인해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해 사전에 의논하는 것도 필요함.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경우 이러한 감정을 공감해 주고, 주변인에 대한 불신과 원망 등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 신뢰감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력인 등 주변인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관리함.
- 피해자가 사건종결 이후 심리·정서적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는 모니터링에 좀 더 유의함.
  - 자신에 대한 비난과 자기비하 등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 우울감을 호소할 수 있는데 피해의 원인이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자기비난적인 사고를 수정하도록 도움.
  - 피해경험은 삶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고, 미래의 삶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며, 지금은 혼란스러운 삶을 재건할 수 있다는 인지적 사고를 도움.
  - 자존감 회복을 통해 긍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
- 치유회복상담 종료 후 일정 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일상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함.
- 피해자가 원한다면 더 이상의 모니터링을 종결해도 좋지만 그 이유가 피해회복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보이는 회피반응이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의 요청으로 연락과 모니터링을 중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고충상담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함.
- 피해자가 담당기구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가 담당기구의 연락만으로도 사건이 떠올라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애써 연락을 시도하지 않기. 다만 힘들거나 의논할 것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 두기.

### 2) 피신고인

- 중재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 가해행위자가 합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피해자와 공간분리가 되고 있는지 살핌.

- 가해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상담이나 재교육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가해행위자가 해당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프로그램을 잘 마치는지 모니터링 함.
- 가해행위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상담이 필요함.
- 가해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저항감, 좌절감, 두려움 등 부정적 정서를 다루어 가해행위자 역시 자신의 삶을 재통합하도록 지원해야 진정한 의미의 재발방지가 가능.
- 가해행위자가 재발방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후속관리가 필요함.
- 가해행위자가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 다시 학교에 복귀하였을 때 잘 적응하는지,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서 가해행위자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도움.
- 일정 간격을 두고 가해행위자가 일상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함.
- 가해행위자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존중을 표현하고, 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수정할 수 있음을 신뢰함. 이는 가해행위자에 대한 관용이나 옹호가 아니라 가해행위자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임.
- 가해행위자의 책임감과 행동변화에 직면하도록 하고, 저항을 적절하게 다루어 문제가 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 하려는 시도가 의미 없음을 일깨워 줌.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

### 3) 참고인

- 사건종결 이후에도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삼가도록 비밀유지 당부함.
- 사건종결 이후에도 주변인들이 끊임없이 사건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사건당사자들이 학교생활에 복귀하여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함.
- 주변인들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돕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움.
-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 사건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7. 사건처리 서식 및 기록물 관리



- 사건접수와 사건처리에 필요한 단계별 문서 종류와 서식은 아래 표와 같고 부록에 주요 예시 양식을 첨부함. 이를 참고하여 각 대학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모든 사건처리 기록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민감 정보에 해당되므로, 사건처리 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며, 사건 관련 자료 작성 시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사건처리 전반 문서 및 파일 등은 학교 기록물 보관 장소가 아닌 별도 장소에 잠금장치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기록물 보존기한은 각 대학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르거나 보존기한이 없다면 보존기한을 정하고, 보존기한 후 폐기하여야 함.
- 사건처리 절차와 방식은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각 단계별 필요한 문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도록 함 (표 II-3 참조).

〈표 II-3〉 사건처리 절차에 따른 서식 종류

유 형	서식 종류 <sup>27)</sup>	서식 작성자
상담	상담 신청서	피해자, 가해행위자, 제3자
	상담 일지	담당자
중재	중재 요청서	피해자
	중재 합의서	피해자, 가해행위자(피신고인)
조사 · 심의	신고서	신고인
	진술서	당사자, 관계인
	당사자 서약서(개인정보이용 동의 포함)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서약서	참고인
	사건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문(학교 규정 첨부)	안내문(담당기구)
	신고접수 및 조사개시 통보	담당기구
	조사 일지	담당자
	출석진술 통지	담당기구
	출석진술 서약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심의)위원 서약서	조사(심의)위원
	회의자료(조사보고서 초안)	담당기구/조사위원
	회의록	담당기구/위원회 간사
	조사결과보고서	담당기구/위원회 간사
	사건 심의결과 통지	담당기구/위원회 간사
징계 요청	징계요청서(※ 보안 공문 결재) (사건자료(비실명 처리) 직접 전달)	담당기구/위원회 간사
기타	신고 철회 신청서	신고인
	재심의 요청서 ※ 재심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신고인, 피신고인

27) 문서종류 서식은 부록으로 수록함.



#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유형별 스토리텔링



1. 학생 · 학생 간 성폭력
2. 교수의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
3. 디지털 성폭력
4. 교내 구성원이 아닌 비구성원 가해행위자
5. 부적절한 놀이문화
6. #MeToo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게시물



##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유형별 스토리텔링

### 1. 학생 · 학생 간 성폭력



#### 가. 사례

##### [신고인(B) 관점]

A와 B는 동아리 선후배이다. 둘은 동아리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A의 제안으로 A의 자취방으로 2차를 하러 갔다.

A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해서 먼저 잠을 자게 되었다. B는 자신이 침대 위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일어나보니 침대에서 A가 B의 옆에서 자고 있었으며 B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A도 옷을 벗은 채 자고 있었다. 깜짝 놀라 B가 옷을 챙겨 입자, A가 “잘 잤어?”라고 말해서 잘 잤다고 하고 얼른 그 방을 빠져나왔다.

B는 그 이후 바로 나와서 생각해보니 드문드문 만취해 있던 자신의 몸을 A가 만진 기억들이 떠올랐다. B는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심경을 적어서 보냈다. B는 그 이후 고민하다가 약 한달 뒤 A와 마주치는 것이 괴롭고 이번 일에 대해 A가 모른 척하는 태도 등에 화가 나서 학교에 신고하기로 결심하였고 학교 담당기구에 신고하였다.

##### [피신고인(A) 관점]

A와 B는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서 B와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뭔가 통하는 느낌이어서 편하게 여기고 함께 A의 자취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다. 둘은 술을 마시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A가 “우리 서로 헤어진 연인을 잊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오늘 밤을 보내는 게 어때?”라고 말했을 때 B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었다. B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해서 먼저 잠을 자게 되었다. A는 B에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했는데, B가 눈을 떴었다가 다시 감았다. A는 이것을 동의라고 여겼고, 그 뒤에 옷을 벗기고 애무를 하였다. 옷을 벗길 때도 A는 강제로 벗기지 않았으며, 누워있던 B가 옷을 벗기 위해 등을 들기도 하여서 A는 B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었다. 중간 중간 적극적인 스킨십을 B 또한 한다고 느껴서 서로 좋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 B를 보고 A가 “잘 잤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헤어졌다.

A는 그 이후 뭔가 B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뭐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자신도 조심하며 지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담당기구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

## 나. 사건 처리 사례 분석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발생장소
피해자	동아리 선배 (구성원)	동아리 후배 (구성원)	사적 공간 (피신고인 자취방)
처리방식	사건특징	증거유무	주의점
심의의결 처리	당사자 1:1사건 진술 불일치	정황증거만 존재	구체적 증거 없을 시 조사 포인트

## 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 상담 · 신고 단계

- 성폭력((준)강간)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확보가 중요함.

#### <성폭력((준)강간) 사건 초기 증거 확보 방법>

- 피해를 입게 되면 목욕, 샤워, 좌욕, 음식물 섭취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혹은 산부인과에 가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하고 진단서를 받아야 함. 옷을 갈아입었다면 사건 당시 입은 속옷 등을 비닐이 아닌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서 갖고 가야 함.
- 사건 후 72시간 이내이면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응급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
- 72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성폭력응급키트를 시행할 수 있으니,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 되지 않았다면 해바라기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 해바라기센터에 신고 시 지원 서비스: 신체적 검진, 성폭력 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 키트 사용 및 법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 변호사 등 지원서비스 가능함.

- 현재 문제를 신뢰할 만한 친구, 가족 등과 상의하는 것을 권유(신고인이 거부 시 강요할 수는 없음. 단 신고인이 만 19세 미만인 피해사실의 경우 학교가 사건인지 시 경찰 신고가 사건을 인지한 학교의 법적 의무임을 고지하여야 함).

-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피신고인과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공간분리를 원할 때 학교 규정에 의거한 빠른 분리조치 필요.
- 단 분리조치는 심의의결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임시조치이므로 강제적이기보다는 피신고인의 협조를 구하여 이행 가능(이때 신고인에게 분리조치의 제한점 설명).
- 분리조치 제한점: 학교 안의 공간에서만 분리조치 할 수 있음. 피신고인에게 학교의 모든 공간을 제약할 수는 없음(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고인과 있는 공간 외에 주요한 공간은 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학과에 비밀유지 하에 공간분리에 대해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분리조치 실시 전 논의할 내용: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논의(수업 조정 및 결석 인정), 같은 수업의 경우 분리조치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양한 방법 논의.
- 대학 내 신고절차 외에 별도로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 학교에 상담하면 수사기관 신고가 되는 줄로 잘못 아는 신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는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는 것임을 고지.



### 조사 · 심의 단계

#### 1) 조사단계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조사 시 유의.
-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피신고인과 신고인 간 진술불일치가 있을 경우 다음의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필요.

A와 B의 진술이 불일치 할 경우	1) 피신고인이 행위는 인정하나 서로 합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할 경우 Q: 무엇을 동의로 보았나요? (예: 동의는 심신미약의 상태일 경우 인정될 수 없으며, 동의는 암시적, 비언어적인 표현이 아닌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2) 피신고인이 행위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 Q: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3) 피신고인이 행위의 일부분만 인정하는 경우 :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나누어 기술. : 성추행의 경우 만진 횟수가 중요하지 않음.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것 또한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조사함.
	4)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인정할 경우 :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질문함.

- 사건 조사 시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사이였고, 어떤 맥락에서 2차 술자리를 가게 되었는지 질문함. 사건 당시 질문으로는 성폭행이 일어나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면서 구체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봄.
- 구체적 증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확보하여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조력함.
- 정황증거는 신고인이 사건 직후 나와서 친구에게 연락한 카톡자료, 사건 이후 결석 정황 등을 제시 가능.
- 사건 이후 사건 장소에서 나오게 된 상황, 그 이후 피신고인과 어떤 연락 등을 했는지, 이후 피신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건맥락에 좀 더 개연성 확보를 위한 시도.

## 2) 심의단계

- 진술이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은 진술의 일치하는 지점과 불일치하는 지점의 사건내용을 살펴봄. 이때 미리 진술분석표를 작성하여 회의자료에 포함하면 검토하기 수월함.
- 진술 불일치 시 심의위원들은 신고인이 피신고인과의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얻을 2차적 이익이 있는지, 신고인의 주관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는지 합리적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신고인이 형사절차 진행시 이와 별도로 학내에서의 징계절차 가능함.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공간분리, 수업분리조치, 수강신청취소, 휴학 신청 및 연장 등)를 해당 학교 규정에 입각해서 논의하여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권고함.
- 해당 학교 규정에 치료비 등의 배상을 조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학내 규정이 있다면 신체적, 심리적 치료비 배상을 논의 함.
- 피신고인의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재발방지 교육과 사과문 제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음.



## 종결 · 사후 조치 단계

- 학생이 입은 피해와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심리적 조력을 해야 하며, 담당기구에서 심리상담 지원이 어려운 경우, 교내 심리상담 부서에 연계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과정과 징계 절차에서 사건을 알게 되는 학내 행정기구 책임자 및 실무자, 대학 내 (보직)교수들에게 사건 내용 및 당사자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요청을 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여야 함. 이때 공문은 보안 설정하여야 함.

## 2. 교수의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



### 가. 사례

A교수가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이 지각을 했을 때 여학생에게는 ‘어제 남자친구랑 뭐하느라고 늦게 일 어났냐?’고 이야기 하였으며 남학생에게는 ‘남자답지 못하다, 그럴 거면 X X (중요부위) 잘라라. 좀 씻고 다녀라 그래야 짹짹 땀만나지’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함. 학생들은 다른 수업 에도 A교수가 줄곧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동안 학교 측에 여러 번 문제제기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진술서를 들고 학내 담당기구에 신고하게 됨.

### 나. 사건 처리 사례 분석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발생장소
여러 명의 학생들이 무리지어 신고함	같은 학과 교수	다수의 피해자 반복된 피해	교내 강의실
요구 처리방식	사건특징	증거유무	주의점
공식처리 교수 징계	학기 중 사건으로 학생들이 성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가능성 있음	해당 수업 발언 녹취 해당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진술	성적에서의 불이익, 소문 등 2차 피해

### 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 상담 · 신고 단계

- 해당 학생들이 요청할 경우 학내 근거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위교수와 공간분리 될 수 있도록 지원 (교무처 및 해당학과와 협조를 통해 공간분리 방안 등을 논의함. 교수-학생 간 사안이라 사안발생 즉시 교원 수업배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체 강사 수업 등 방안 마련) (근거: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2081(2014.03.14.) 교내 성범죄 피해 학생 보호 및 수업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요청)
- 성희롱 발언의 기간, 반복성, 구체적인 발언과 내용의 심각성, 피해자 수, 사건의 심각성, 해당 교수의 다른 수업에서의 성희롱 발언 여부 파악 필요.

- 피해자들 중에 피신고인에게 자신이 신고인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신고하기를 꺼리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신고인이 아닌 피해자로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신고인과 피해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함.
- 피해자로서 진술만 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내용 중 피신고인에게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자가 특정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특정이 된다면 조사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됨. 즉 피신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 인정과 책임 부과를 할 수 없음. 만약 진술자가 조사범위에 포함하기를 원하고 진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조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지위 차이에 관한 설명.
  -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호조치 대상자.
  -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됨.
  - 피해자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음.
- 피해자들 중에 의논하여 한 명이 대표로 신고인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신고인이 될 수도 있음. 혹은 모든 피해자가 신고인이 되기를 두려워한다면 담당기구에서 판단하여 신고인 없이 직권조사로 진행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 조사·심의 단계

#### 1) 조사단계

- 신고인들 대상으로 성적 언동의 사실관계 및 성적굴욕감, 수치심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 신고인에게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참고인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비밀유지를 요청한 후 담당기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서면진술서나 조사면담을 원하면 연락하도록 안내함. 참고인이 담당기구에 연락을 해오면 사건에 대하여 조사. 참고인 조사 시 참고인에게도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야 함.
- 피신고인의 다른 수업에서도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진술이 담당기구에 제출된다면 수집하고 진술자에게 진술한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신고를 원하거나 조사범위에 포함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함. 이때 진술자가 피신고인에게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진술자가 특정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특정이 된다면 조사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됨. 즉 피신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 인정과 책임 부과를 할 수 없음. 만약 진술자가 다른 수업 성희롱 발언을 조사범위에 포함하기를 원하고 진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조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담당기구의 직권으로 다른 수업 내에서의 피해 유무를 조사하기를 원한다면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 신고 내용 이외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의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의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함.
- 피신고인 교수의 경우 더 열심히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훈육 목적 언동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평소 신고인 학생의 태도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수업과 무관한 성관련 언행은 성희롱이라는 부분에서 피신고인의 의도나 취지가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

- 좋은 의도나 취지더라도 상황이나 맥락,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피신고인에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음. 이때 성희롱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2) 심의단계

- 교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본 발언이 해당수업과 관련이 있는지, 성적 언동의 사실관계 및 해당 언동이 일어났던 장소,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여성 관점에서 성적합의가 있는 성적 굴욕감, 혐오감이 있는지 신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심의.
- 심의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 이때 교원의 경우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상 징계 규정에 따름.
- 가해행위 교수가 해당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교육 명령을 권고 가능.



### 종결·사후 조치 단계

- 교수와 학생이라는 수직적 위계적 관계를 감안하여 본 사건 관련 진술자들의 신상과 진술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사건 이후 관련 비밀 준수 어길 시 이에 대해 파악하고 조치함.
- 가해행위 교수가 해당과목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학과 내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함 (예: 성적평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함).
-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에 대한 예방교육 이메일 배포, 적극적인 담당기구(성평등 업무담당 창구) 안내 등 예방을 위한 노력.
- 필요 시 해당 수업 학생들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요청할 것.

## 3. 디지털 성폭력



### 가. 사례 소개

A와 B는 학교 동아리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C.C.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과제까지 너무 많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A는 학교에서 밤을 새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아리 방에서 공부를 하던 A는 날이 추워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던 남자친구 B에게 연락하였고, 둘은 B의 자취방에서 같이 과제



를 하게 되었다. B는 먼저 과제를 마치고 라면을 사오겠다고 하여 나갔고, A는 노트북이 잘 작동이 안 되서 B의 노트북으로 과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B의 노트북을 켰다.

A가 자료 검색을 위해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하려 하는데,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다. 궁금한 마음에 클릭했더니, 비번 설정이 되어 있다. A는 B가 즐겨 쓰던 휴대전화 비번을 입력했더니 폴더가 열렸다. 한번 보고 말 생각으로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폴더에는 A를 포함하여 익숙한 동아리 학생들의 이름이 하위 폴더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A는 자신의 이름인 폴더를 클릭하였는데, 그 폴더에는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다. 찍은 줄도 몰랐던 평소 데이트 장면 사진부터 시작해서 스킨십, 성관계 영상까지 A는 알지 못했던 촬영물이 가득했다. 놀라서 다른 이름의 폴더를 열어보니 학과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다.

너무 놀란 A는 B에게 말하지 않고 노트북을 들고 그대로 자취방을 나왔다. A는 B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B는 상황을 짐작하고 다 삭제할테니 제발 봐달라는 카톡을 보내왔다. A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어 친한 친구 C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C는 동아리 안에서 몇 명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이상한 사진을 주고받는다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C는 A의 노트북을 인계받아, 학내 담당기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게 되었다.

## 나. 사건 처리 사례 분석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발생장소
제3자 신고	구성원	구성원, 다수의 피해자	교내, SNS 등
요구 처리방식	사건특징	증거유무	주의점
조사 - 심의	외부기관 의뢰 (경찰, 기타 상담기관)	물적 증거	2차 피해

## 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 상담 · 신고 단계

- 제3자 신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제3자가 신고함(학내 규정에 의거).
- 신고 시, 피해자는 교내 처리와 교외 처리의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음.
- 디지털 성폭력은 범죄에 해당하여 교내 + 교외 처리의 동시 진행 가능성이 높음.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인지 시, 교외 처리 방법

민간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a href="http://cyber-lion.com">http://cyber-lion.com</a> DSO(디에스오) <a href="http://www.dsoonline.org">http://www.dsoonline.org</a>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 신청 <a href="http://www.women1366.kr/stopds/">www.women1366.kr/stopds/</a> 전화번호 02-735-8994
경찰서 등 수사기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취해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하는 자료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 조사 · 심의 단계

- 조사 시 확보된 물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대학 내에서 디지털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한계 : 삭제된 영상물 복구 혹은 단체 대화방 복구 불가, 가해자 휴대폰 압수 조사 불가.
- SNS 등 온라인 유포 가능성 등 2차 피해 가능성 고려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규정에 따라 조사와 심의 절차 진행함.

### [다수의 피해가 인지된 경우]

- 증거물을 확보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피해자가 신고를 원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피신고인이 물적 증거를 불법(동의 없이 노트북을 들고 간 것)이라 주장할 경우]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고려해야 함.
- 증거가 있으나 개인의 힘으로 증거물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물을 획득하는 방법(예: 압수수색)이 있음.

### [오래된 피해인 경우]

-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특성 상 피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교내 규정 상 신고 가능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조사 및 심의가 어려울 수 있음.
- 만일 조사 가능 기한이 지나 교내-교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기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은 받을 수 있음.



### 종결 · 사후 조치 단계

-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 등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교내-교외 처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온라인 유포 확대 가능성 염두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에 연계하여, 삭제 지원을 요청해야 함.

- 삭제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연락처, URL(피해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주소), 키워드(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원본 촬영물, 캡처 화면(URL, 키워드, 피해촬영물 등을 찍은 화면) 등이 있음.

#### 4. 교내 구성원이 아닌 비구성원 가해행위자



##### 가. 사례 소개

한국에 온 지 2년 된 유학생 A는 방학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인턴을 뽑는다고 한 00기업의 공고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합격하였다. 한류에 관심이 많고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 터라 A는 인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들뜬 마음으로 인턴 생활을 시작하였다. 00 기업에서의 인턴 생활을 하면서 업무 면에서는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지만, 인턴 기간에 퇴근을 하고도 회식자리에 남아서 어울려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문화는 조화롭게 잘 지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모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

인턴이 끝나가던 어느 날 회식 중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A는 노래할 마음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턴 담당 과장이었던 B가 A를 끌어당기며 같이 노래를 하자고 하였다. 일어나지 않으려 했던 A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B는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노래를 시작하였다. 노래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고 엉덩이에 손을 올렸다. 하지마라고 뿌리치자, '외국에서는 다 그러지 않냐'며 오히려 B가 항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직원들과 인턴들도 있었지만 다들 눈을 피할 뿐, 아무도 B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A는 지도 교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학생의 피해를 인지한 지도 교수는 교내 담당 기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 나. 사건 처리 사례 분석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발생장소
지도교수 혹은 피해자	비구성원	구성원(유학생)	학교 밖(회식장소)
요구 처리방식	증거유무	주의점	
외부기관 의뢰 (피신고인 소속 기관)	목격자 있음	교내처리 가능여부, 외국인 상담	

#### 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 상담·신고 단계

- 지도 교수가 학생의 피해를 인지한 상황에서는 학생이 지도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지도 교수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하는 것인지, 다른 대응과 처리를 원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함.
- 학생의 학교의 개입을 원하는 것이 파악된 상태에서는 학내 담당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계한 다는 것과 그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이 직접 담당기구에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교수가 담당기구에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음을 설명함.
- 학내 기구에서는 학생과 면담하여 학생이 어떠한 처리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가해행위자가 비구성원 인 경우 학교에 통제권이 없기에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외부) 의뢰 형태로 처리 가능함을 안내해야 함. 즉, 피해자가 담당기구에 요청 시,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공문으로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에 사건 처리 요청을 하는 것과 피해자가 직접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해야 함. 또한 학교의 지원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학생이 학내 담당기구를 통한 중재(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를 원할 경우에는 학내 기구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함. 담당기구의 조사·심의 를 통한 판단과 결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가능하고 이 결과를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에 보내어 사건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음도 안내함.
- \* 학생이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상담 기구에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 과 대화가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지도 교수 등)를 동반하도록 안내하거나(이때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요청하도록 함)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통역 인력을 통해 상담할 수 있음. 통역하는 제3자의 경우 사건 내용과 당사자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상담을 진행함.



##### 조사·심의 단계

- 가해행위자가 비구성원이며 학교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외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함. 학교가 학생의 피해를 인지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가해행위자가 소속된 조직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 가해행위자의 소속 기관(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구두 연락보다 학교 명의로 된, 공적인 문서 형태로 학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임(예: 공문, 내용증명 등).
- \* 학교의 개입 방향과 결정에 대해서 피해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해 행위자 소속 기관에 처리 요청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피해 진술에 대한 내용을 공문에 첨부.
- 가해행위자가 소속된 조직의 규정에 따른 조사와 가해행위자 심의 요청.
- 당시 목격했지만 방관한 구성원에 대한 조사 및 규정에 따른 조사·심의 요청.
- 학교와의 공적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기를 당부하는 내용.

-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 요청.
- 가해행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의사결정, 후속조치 사항 회신 요청 등.



### 종결 · 사후 조치 단계

- 학교는 00기업에 인턴, 취업 등의 형태로 학생이나 졸업생을 많이 보내왔으며,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기업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학생의 피해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할 수 있음. 그러나 학생의 피해에 학교가 개입하는 것은 그 기업에 파견 · 입사할 학생에 대한 보호와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학교는 비슷한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소 등을 통해 학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학교 차원에서는 인턴, 교환학생, 교생실습 등 일정기간 외부(기업, 학교 등)로 파견하는 학생에 대해 사건 발생 시 교내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 혹은 가이드북을 사전에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 차원에서 다른 대학교 학생이 교환학생, 유학생 등으로 일정기간 오게 되었을 때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시 교내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 혹은 가이드북을 사전에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 차원에서 사범대학에서 교생실습 파견 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생이 실습하게 되는 학교에 교직원 대상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가 외부에 도움 요청을 하였다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입은 피해와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심리적 조력을 해야 하며, 담당기구에 심리상담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교내 심리상담 부서에 연계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도 교수가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교수 입장에서 학생의 피해를 인지했을 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안내하는 것 역시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라. 유학생 상담 시 유의점<sup>28)</sup>

- 유학생 성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상담자는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해 편견 및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학생이 경험하고 지각한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함. 이를 위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사전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사건 처리 이전의 상담 단계에서 유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 이해 필요 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볼 수 있음(예: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아래), 지각된 차별감 척도(아래) 등).

28)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2016). 외국인 유학생 상담 가이드북.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 ASSIS)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척도.

가) 문항 구성 : 총 36문항, 5점 리커트 자기보고식 척도

나) 하위 영역 :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 등 7가지 구성

다) 척도 특성 :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의미

라) 128명의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 Cronbach's  $\alpha=.93$ <sup>29)</sup>

마) 문항 구분

스트레스 요인	관련 문항
지각된 차별감	3, 9, 11, 14, 17, 23, 26, 29
향수병	1, 6, 21, 35
지각된 적대감	4, 15, 20, 24, 33
두려움	7, 18, 27, 31
문화적 충격	2, 13, 22
죄책감	10, 34
기타(사회적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문제 등)	5, 8, 12, 16, 19, 25, 28, 30, 32, 36

29) Sandhu, S. D., &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 Psychological Reports, 75 (1), 435-448.

바) 전체 척도

-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 -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에 대한 향수병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5
2	새로운 음식물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2	3	4	5
3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1	2	3	4	5
4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비웃는다.	1	2	3	4	5
5	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려면 긴장된다.	1	2	3	4	5
6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프다.	1	2	3	4	5
7	내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나의 개인적인 안전이 걱정된다.	1	2	3	4	5
8	나는 이곳에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심(주저)하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1	2	3	4	5
11	이곳에서는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1	2	3	4	5
12	이곳에서 나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	1	2	3	4	5
13	이곳에 온 이후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에게 있다.	1	2	3	4	5
14	나는 이곳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하다.	1	2	3	4	5
15	이곳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다.	1	2	3	4	5
16	이곳 사람들이 나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않을 때 속이 상한다.	1	2	3	4	5
17	이곳에서는 나의 가치가 부정된다.	1	2	3	4	5
18	나는 이곳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혼자 있다.	1	2	3	4	5

19	나는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위축됨을 느낀다.	1	2	3	4	5
20	이곳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1	2	3	4	5
21	나는 나의 조국과 그곳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1	2	3	4	5
22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2	3	4	5
23	이곳에서는 나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24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를 미워함을 나타낸다.	1	2	3	4	5
25	나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이 사회 안에서 나의 신분(지위)은 낮다고 느낀다.	1	2	3	4	5
26	나는 내가 가진 외모(신체, 복장들)로 인해 다르게 취급 받는다.	1	2	3	4	5
27	여기는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	1	2	3	4	5
28	나는 여기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29	나는 이곳 사람들과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 다르게 취급 받는다.	1	2	3	4	5
30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 슬픔을 느낀다.	1	2	3	4	5
31	나는 이곳에 온 후 두려움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다.	1	2	3	4	5
32	나는 이곳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사귀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33	이곳 사람들은 언어로 나를 미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	2	3	4	5
34	나는 여기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35	나는 친지들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것이 슬프다.	1	2	3	4	5
36	나는 여기 머물러야 할지 돌아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미래가 걱정된다.	1	2	3	4	5



## 2) 지각된 차별감 척도

지각된 차별감 척도는 Williams와 Kessler, Mickelson(1999)이 개발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상적인 지각된 차별감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됨.

가) 문항 구성: 9개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

나) 척도 특성: 삶에서 불공정한 대우와 개인적 거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차별감이 큼을 의미

다) 3,032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Cronbach's  $\alpha=.93^{30)}$

라) 문항 구분

요인	관련 문항
불공정한 대우	1, 3, 5, 7, 9
개인적 거절감	2, 4, 6, 8

마) 전체 척도

## - 지각된 차별감 척도 -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례한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2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1	2	3	4
3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불충분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4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1	2	3	4
5	사람들은 마치 내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1	2	3	4
6	나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7	여기에서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1	2	3	4
8	나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9	나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한다.	1	2	3	4

30) Williams, D., Kessler, R., & Mickelson, K. (1999).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3), 208-230.

## 5. 부적절한 놀이문화



## 가. 사례 소개

어느 학과에서 1박2일 계획으로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교외의 펜션에 모여 선배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저녁식사 이후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선배들은 새내기에게 앞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배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연락처를 그냥 줄 수는 없으니 각자 알아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선배들의 연락처를 따도록 미션을 주었다. 남학생 선배들은 여학생 새내기들에게 애교를 잘 부리고 섹시댄스를 근사하게 추면 연락처를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여학생 선배들은 “누난 내 여자니까~”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모 가수의 노래를 느끼하게 부르면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이들은 ‘귓속말게임’을 했는데 이때 전달된 내용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섹시한지, 누가 누구와 커플로 가장 잘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담긴 말들이었다.

또한 게임을 하던 중 진 사람에게서는 옆 사람의 무릎에 앉아 자신의 쇄골에 술을 부어 옆 사람이 그 술을 마시게 하는 러브샷 벌칙이 주어졌고, 벌칙을 수행할 당시 모임에 함께 참여했던 학우들은 그 장면이 재미있다고 사진과 동영상을 마구 찍어냈으며, 그 내용은 학과 단체 대화방에 게시 및 공유되었다.

새터에 참여했던 몇몇의 학생들이 게임의 내용이 부적절했고, 벌칙 수행 장면 등을 함부로 탑재하는 것도 문제라며 학과 단체대화방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측과 예전부터 늘 그래왔던 게임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번 새내기들은 다들 ‘진지충’인 것 같다,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는 구성원으로 나뉘어 서로 험한 언어로 상대측을 비난하고 조롱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의 학생들이 학생회에 찾아가 학생들의 놀이문화가 잘못되었다는 이의제기와 함께 술게임 벌칙장면이 SNS에 공유되는 일, 잘못된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자는 제안을 비롯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신고하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학생회는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학내 성평등 업무 담당기구에 찾아와 상의하여 처리하기를 원하였다.

## 나. 사건 처리 사례 분석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발생장소
학생회 혹은 피해자 대표 혹은 피해자 다수	다수의 학내 구성원	다수의 학내 구성원	교외펜션, SNS 등
처리방식 1	처리방식 2	증거유무	주의점
합의중재	조사 · 심의	사진, 동영상, 목격자	2차 피해

## 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 상담 · 신고 단계

- 상담을 하러 온 학생회 학생들이 담당기구 상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함.
- 피해자들이 아직 해결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학생회에서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담당기구 혹은 학생회) 어떤 방법(중재, 조사 · 심의)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함. 이때 각 방법의 장단점과 특성(피신고인의 징계 등 처벌을 원한다면 조사 ·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등)을 설명할 수 있음. 피해자마다 의견이 다르다면 각자 결정한 대로 사건을 신고하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 학생회에서 파악한 사건 관련 내용과 현황을 들음.
- 학생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의견을 들음.
- 피해자 측에서 학생회를 통한 사건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학생회가 담당기구의 조언을 들으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
- 합의는 원칙적으로 피해 주장자와 피신고인 측에서 동의해야 가능하고 특히 피해 주장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함을 안내.
- 합의는 피신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함.
- 합의는 피해자 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피신고인이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실천하기로 동의함으로써 성립됨.
- 학내 담당기구를 통해 합의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
- 합의중재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는 조사 · 심의 절차로 전환될 수 있음도 안내함.
- 디지털 성폭력은 범죄에 해당하여 교내와 교외에서 동시에 사건 신고 가능함을 안내하고 교내 규정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도 학생회 측에 알려줌.
- 학생회에서는 피해자 측에게 사건처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이 사건해결방법을 정하도록 안내함. 학내 상담기구를 통해 사건처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피해당사자나 학생회가 신고하여 조사개시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함. 피해당사자들 모두, 혹은 피해당사자 대표 1인, 혹은 학생회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각 경우의 차이점과 신고인과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인지 시, 교외 처리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온라인 상담 게시판( <a href="http://www.women1366.kr/stopds/">www.women1366.kr/stopds/</a> )이나 전화(02-735-8994)를 통해 상담을 신청 (전화접수: 평일 10:00~17:00)
민간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DSO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팀
경찰서 등 수사기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취해 신고



## 조사 · 심의 단계

- 피해자 측이 담당기구에서 합의중재를 통한 사건 해결을 원하고 신고한 경우 합의중재 절차를 진행함.
- 조사 시 확보된 물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사진, 동영상.
- 합의중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음. 조사 시 참고인 진술 확보 방법: 신고인에게 새터에 함께 간 학생 중에 참고인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비밀유지를 요청한 후 담당기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서면진술서나 조사면담을 원하면 연락하도록 안내함. 참고인이 담당기구에 연락을 해오면 사건에 대하여 조사. 참고인 조사 시 참고인에게도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야 함.
- 피해자가 여럿일 때에는 피해자 개인을 따로 면담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에서 원하는 것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음. 다른 피해자가 함께 있을 때에는 솔직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새터에서 발생한 사안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피해자와 상의.  
→ 행위당사자,  
섹시댄스 춤추기와 노래 부르기를 요구한 선배,  
러브샷 당시 쇄골에 입을 대고 술 마신 당사자,  
벌칙 수행을 주저하는 학생에게 야유하고 박수치면서 종용한 주변인,  
귓속말로 성적 표현을 말한 당사자,  
새터 프로그램 기획자, 학과 내 행사책임자,  
SNS 단체대화방에 벌칙수행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물을 탑재한 자,  
새터 행사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
- SNS 등 온라인에 관련 사진과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 문제의식 표명자를 조롱한 사람은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피해당사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사항을 점검.
- 피해자 개개인마다 원하는 사건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중재 대상과 중재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함.
- 학생회는 학과 내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학과 교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고인의 동의 후에 협조 요청을 함.



## 종결 · 사후 조치 단계

- SNS에서 문제제기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이 있었던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면 합의조건이 실행에 옮겨지는지 모니터링 하기.  
→ 학과 내 성평등 문화에 관한 모니터링은 학생회가, 가해행위자가 실행해야 하는 합의 사항은 학내 담당기구가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 가능함.
- 재발방지 대책(학과 전 구성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등)을 수립하고 이행함.
- 가해행위자 학생이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해행위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의조정이 파기되고, 피해자가 원하면 조사·심의를 통해 사건처리를 할 수 있음.

## 6. #MeToo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게시물



### 가. 사례 소개

학교 구성원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졸업생을 자처하는 누군가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자신이 재학할 당시 모 학과 교수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최근까지 해당 교수가 학교에 재직하면서 활발하게 학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이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졸업 후에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학원 진학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직후에 교수가 개인 연락처로 전화하여 연구실로 오라고 하여 대학원 진학에 관한 상담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연구실에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교수는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공부에 뜻을 둔 글쓴이를 칭찬하면서 진학상담을 해주었다. 그런데 교수가 “이렇게 예쁜데 공부까지 더 하면 나중에 시집 못가서 나에게 원망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크게 웃었던 것이 불편하였고, 상담을 마치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을 때 엉겁결에 따라나섰다가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교수가 학교 밖으로 나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였다. 진학상담 이후에도 교수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단 둘이 만나서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하여 이를 거절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가중되었고, 결국 글쓴이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졸업생을 자처한 익명 게시글이 올라오자 이를 본 재학생들 중에는 지목된 교수로부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을 올렸고, 교수와 학교를 성토했다는 댓글도 다수 올라왔다. 해당 교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누군가 게시글과 댓글을 캡처하여 교내 성평등 상담기구에 이메일로 보냈고, 업무담당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 나. 사건 처리 주요 키워드

제보자	피신고인	피해자	발생장소
익명	교내 구성원, 교수	비구성원(졸업생)	학교, 외부
처리방식 1	처리방식 2	증거유무	주의점
직권조사	조사·심의	위원회에서 조사방법 결정	명예훼손

### 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 상담·신고 단계

- 익명제보: 학내 담당기구에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내 사건을 알림(익명 제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내 규정 살펴보기).
- 담당기구에 온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 학교 관련 규정과 사건처리절차 안내문을 보내고 학내 담당기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혹은 조사 의사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함.
- 피해자가 학내 기구에 사건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건 관련 글이 게시되었던 온라인 게시판에 사건상담 연락처와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함. 피해자의 연락이 없을 때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지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함(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없을 때 익명의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가해행위자가 특정되고, 게시글 외에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글쓴이는 졸업생이지만 게시글의 댓글 중 재학생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직권조사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 가능함.
- 직권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게시글과 댓글의 상황을 학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여 학내 사건처리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논의·의결하면 진행 가능함.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없다면 실제로 조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함.
- 학내 사건처리 의결 후, 익명게시판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자 교수의 실명 공개 등이 명예훼손 등의 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게시물 관리에 대하여 게시판 운영진과 상의함.
- 학내 사건처리 의결 후, 해당 게시글의 댓글로 학내 담당기구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제보 또는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
- 학내 사건처리 의결 후, 학내 담당기구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및 논쟁을 예방함.

- 학내 사건처리 의결 후, 가해행위자 교수가 진행한 수업의 강의평가 결과를 교무처에 요청하여 살펴보고, 내용 중 교수의 문제행동이 있는지 확인함.
- 학내 사건처리 의결 후, 가해행위자 교수가 속한 단과대학 전체 학생대상 설문 진행하여 피해 여부 점검하고 유의미한 응답이 있는지 살펴봄. 설문을 구성할 때 특정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답변 작성자의 신원은 익명처리되며, 답변 내용은 철저히 비밀유지 됨에 대한 안내문을 포함함.
- 학내 사건처리 의결 후, 가해행위자 교수의 행위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위원회 소집을 통한 처리절차를 준비해야 함.



### 조사·심의 단계

- 피해사실에 관한 제보 등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접수된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함.
- 조사·심의위원회 소집과 구성은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사건처리는 통상적인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조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의결되었다면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함.
- 글쓴이의 최초 게시물에 따르면 7년 전 경험한 피해를 언급하고 있는데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시효는 통상적으로 학교의 법인정관 또는 교원(인사)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국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사립대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17일 법개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원칙적으로는 법개정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 경우 징계시효 연장이 적용됨.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할 수 있음.

법령	세부내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종결·사후 조치 단계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6. 2. 3., 2018. 4. 17.>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확보된 제보와 피해사실 확인 자료를 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법적 징계시효와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절차를 논의함.
- 2013년 6월 18일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경우는 피해당사자의 가해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함.
-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사실 확인 및 규정위반 여부에 따라 가해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피신고인에게 사건접수 및 조사 개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은 물론 피신고인 당사자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함.
- 피신고인의 서면진술서를 조사·심의위원회가 검토한 후,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행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피해자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함.
- 사실 확인과 피해자 존재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심의위원회가 “알 수 없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피신고인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교수-학생 간 사건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
- 조사·심의위원회에서 교수의 규정위반 사실 인정과 판단이 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후속조치에 관한 의결사항을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결내용에 따라 관계 부처 등에 징계발의 함.
- 사건 당사자가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의 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지할 때 재심의 또는 재조사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재심의 또는 재조사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함.
- 조사·심의위원회 활동 및 의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보고함.



- 가해행위자 교원의 규정위반 행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무처 등 관할 본부로 사안을 이첩하고 처분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함.
- 가해행위자가 구성원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되었다가 복귀되는 처분(정직 등)을 받는 경우 가해행위 당사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조치함.

## [부록1] 사건처리 주요 양식 예시

※ 아래 양식은 예시입니다. 각 대학의 사정에 맞게 용어와 규정명 및 조항 번호, 기구명 등을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신청서

<b>성희롱 · 성폭력 피해 상담신청서</b>					
접수일자 :                      .        .        .			접수자 : _____ (서명)		
성 명		전 화		이메일	
소 속	학 부	_____ 대학 _____ 학과	학년 ( <input type="checkbox"/> 재학 <input type="checkbox"/> 휴학)		
	대학원	_____ 대학 _____ 학과	학기 ( <input type="checkbox"/> 재학 <input type="checkbox"/> 휴학 <input type="checkbox"/> 수료)		
	교 원	소속기관명 :		직급/직위 :	
	직 원	소속기관명 :		직급/직위 :	
1.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문제에 대해 상담받기를 원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성희롱 · 성폭력으로 인한 고민 전반    ②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신고에 필요한 정보 ③ 성희롱 · 성폭력 피해 후유증 치유        ④ 기타 ( _____ )					
2. 상담하고자 하는 문제가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선택 가능)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학내규정    ②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③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정보                  ④ 기타 ( _____ )					
3. 상담에서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div style="height: 40px;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margin-top: 10px;"></div>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대학교 성평등기구는 상담의 원활한 진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신청인이 위 기재한 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상담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span>					
5. 심리상담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선택] ○○대학교 성평등기구는 신청인이 ○○대학교 개인 심리상담 연계를 원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연계기관에 신청인의 성명, 신분, 소속, 상담 내용의 요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 연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상담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span>					

## • 상담일지

상담 일지							
상담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사건 번호		상담 방법	면접/전화/온라인	사건 분류	성희롱·성폭력 기타	신청인 분류	피해자/행위자/ 제3자/기타(    )
신청인 성명		신분	학부생/대학원생/직원/ 강사/교수/비구성원	소속		이메일 : 전화번호 :	
▣ 상담내용							
▣ 상담자 의견							
상담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 서약서 - 당사자 서약서(신고인, 피신고인)

서 약 서	
<p><b>1. 당사자의 권리</b></p> <p>1) 당사자는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학교 성평등기구에 사전에 통지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p> <p>2) 당사자는 자료(진술서, 진단서, 전문가 소견서, 제반 증거자료 등)를 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을 동반할 수 있고, 기타 사정으로 구두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p> <p>4)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평등기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5) 누구든지 성평등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p> <p><b>2. 당사자의 의무</b></p> <p>1) 성평등기구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진술서와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성평등기구의 <b>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b>하여야 합니다.</p> <p>2) 당사자는 <b>사건 내용</b>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b>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등)</b>에 관하여 <b>비밀을 유지</b>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가 대리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성평등기구의 허가를 받고 그 사람에게 비밀 유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리인 등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3) 당사자는 조사기간 중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p> <p>4)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위협, 폭행, 학업평가·교육·연구·인사·업무·고용상의 불이익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p> <p>5) 당사자는 △△△△△규정 제▣▣조 및 제◎◎조에 따른 인권보호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p> <p><b>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b></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성평등기구는 사건의 원활한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이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등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조사·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p> </div>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top: 20px;">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성명 : _____ (인)           </p>

## • 중재당사자 서약서

## 중재당사자 서약서

사건번호: \_\_\_\_\_

## 1.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00대학교 성평등기구는 사건의 원활한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2. 당사자의 권리

- 1) 당사자는 성평등기구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자는 관련 자료(진술서, 진단서, 전문가 소견서 등)를 성평등기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과 동반할 수 있으며,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 피해 당사자는 중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평등기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누구든지 성평등기구에 신고,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3. 당사자의 의무

- 1) 성평등기구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진술서와 자료 제출 요구 등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성평등기구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가 대리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비밀 유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리인 등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당사자는 중재절차 진행 중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 4)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위협, 폭행, 교육·업무·고용 상의 불이익 처분 등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5) 당사자는 성평등기구 규정 제00조에 따른 인권보호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당사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 중재 합의서

## 중재 합의서

신 고 인 : 000 (소속 : \_\_\_\_\_ 생년월일 : \_\_\_\_\_ 연락처 : \_\_\_\_\_)

피신고인 : △△△ (소속 : \_\_\_\_\_ 생년월일 : \_\_\_\_\_ 연락처 : \_\_\_\_\_)

본 중재 합의서는 20 \_\_\_\_년 \_\_\_\_월 \_\_\_\_일 --- 대학교 --- 담당기구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중재(합의) 처리 요청에 따른 당사자 간 중재가 합의된 내용과 그에 따른 당사자 간 서약사항입니다.

합의 내용(예시) :

- 1) △△△ 재발방지교육 \*\*시간 이수
- 2) 000에 대한 △△△ 개인사과문 작성
- 3) 000에 대한 △△△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마주치는 경우 상호 회피
- 4) === 동아리 자진 탈퇴 및 교내 타동아리 활동 제한

△△△는 이 사건의 중재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건에 대해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20 \_\_\_\_년 \_\_\_\_월 \_\_\_\_일

피신고인 : △△△ (서명)

신 고 인 : 000 (서명)

\*\*대학교 담당기구 귀중

## • 신고서

신 고 서				
접수일자 : . . .		접수자 : _____ (서명)		
사건번호 :				
신 고 인	이 름			
	소 속	학번 또는 직급		
	휴대전화	이메일		
	성 별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피 해 자	이 름			
	소 속	학번 또는 직급		
	휴대전화	이메일		
	성 별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신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피 신 고 인	이 름			
	소 속	학번 또는 직급		
	휴대전화	이메일		
	성 별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아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선배 <input type="checkbox"/> 후배 <input type="checkbox"/> 연인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제자 <input type="checkbox"/> 상사 <input type="checkbox"/> 부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모르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학내관계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내관계 없음		
*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				

## • 진술서

진 술 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신분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대상자 분류	피해자 / 행위자(피신고인) / 제3자				
본인은 20 . . . , 00대학교 성폭력 상담기구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a. 사건 개요(6하원칙하에 기재) b. 사건 발생 당시 생각과 심경 c. 사건으로 인한 영향(일상생활/학교생활에서의 신체, 심리, 정신, 사회적 어려움 등) d. 사건경과(대응, 상대방의 반응, 주변인 반응 등)				
바라는 조치사항					
조사자 의견					
조사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 피신고인 신고고지 안내문

## 안 내 문

1. OO대학교 상담기구는 년 월 일자로 피신고인 %%(소속 및 지위)에 대한 사건신고  
를 접수 받았기에 이를 알립니다.
2. OO대학교 성폭력상담기구는 OO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및 시행 세칙에 의거하여  
상기 접수된 사건을 조사 및 처리 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은 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 및 세칙 참조]
3. 피신고인에게는 진술서 및 출석 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절차 진행 중 및 조사 종결 후, 사건 내용과 관계자들의 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  
가 있습니다. [서약서 참조]
4. 피신고인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진술하여야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출석통지서 참조]
5. 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내 상담소에서 발간한 성희  
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홍보 책자 등을 동봉합니다.

\*\*대학교 성희롱·성폭력피해 상담기구(직인)

## • 서약서 - 참고인

## 참고인 서약서

- 사건번호 :  
■ 성 명 :  
■ 전화 · 이메일 :

## 1. 참고인의 권리

- 1)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 참고인은 관련 자료(진술서, 진단서, 전문가 소견서 등)를 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에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  
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숙지하였습니다.                      참고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2. 참고인의 의무

- 1) 참고인은 조사와 조사·심의위원회의 모든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참고인은 조사와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하며,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 3) 참고인은 본 서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사건 내용 및 관련 인물의 개인 신상 등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OO대학교 성평등기구는 원활한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참고인이 진술서 등에 기재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조사·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참고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문

###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

#### ■ 조사대상 및 방법

##### • 조사대상

성희롱·성폭력피해 상담기구(이하 '상담기구')는 OO대학교 구성원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거나 OO대학교 구성원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성희롱·성폭력 사안 포함)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합니다(OO대학교 규정 제13조).

##### • 조사방법

신고 및 직권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기관)에게 출석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사실조회, 감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진술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OO대학교 규정 제16조).

#### ■ 사건처리절차 등

##### • 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또는 직권조사 개시 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신고인·피신고인(또는 피신고부서)에 대한 기초 조사(전화 또는 출석) ☐ 심의위원회 개최(당사자, 관계인의 출석 진술 청취) ☐ 진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구 결정(각하, 기각, 시정권고, 의견표명, 징계요청 등) ☐ 당사자 결과통지

##### • 피신고인 의견진술기회 부여

상담기구는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한편 상담기구는 서면진술 서만으로 진상파악이 어려운 경우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16조).

##### • 재심의

재심을 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13조 제3항).

#### ■ 권리구제조치

- **합의권고** : 기관장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18조).
- **구제조치 권고** : 기관장은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19조).
- **시정권고, 개선권고, 의견표명** : 기관장은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19조).
- **징계요청** : 기관장은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상담기구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20조).

#### ■ 피해자의 권리

- **대리인 동반 및 선임**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21조).
- **답변거부권** :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21조).
- **보호조치 요구**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21조).
- **불이익금지** : 상담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22조).

#### ■ 피신고인의 권리

- **출석진술** : 피신고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금지** : 상담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OO대학교 규정 제22조).

\* 위 사항은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기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상담기구 연락처).

**\*\*대학교 성희롱·성폭력피해 상담기구**

- 조사일지

조사 일지							
조사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사건 번호		조사 방법	면접/전화/온라인	사건 분류	성희롱·성폭력 기타	신청인 분류	피해자/행위자/ 제3자/기타(    )
대상자 성명		신분	학부생/대학원생/직원/ 강사/교수/비구성원	소속		이메일 : 전화번호 :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조사내용</span> <span>당사자의 권리 및 조사내용 녹취 고지 등 확인</span> </div> <div style="padding: 10px;"> <p>1. 귀하는 「○○대학교 △△△△△ 규정」 제□□조 제◎항에 따라 성평등기구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p> <p>2. 귀하는 「○○대학교 △△△△△ 규정」 제□□조 제◎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p> <p>3. 피해자는 「○○대학교 △△△△△ 규정」 제□□조 제◎항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4. 성평등기구는 조사내용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조사내용을 녹음·녹취할 수 있으며, 본 조사절차 또는 조사 녹취서는 제출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원회 및 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p> <div style="margin-left: 20px;"> 가. 본 사건의 조사·심의위원회 및 ○○대학교의 각급 징계위원회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경찰, 검찰, 법원 </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adding-top: 20px;"> 조사대상자는 위 내용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50px; margin-right: 10px;"></div> <div>조사대상자                      (인)</div>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조사자 의견</span> </div> <div style="height: 150px; border: 1px solid #ccc; margin-top: 10px;"></div> </div>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서약서 - 당사자 서약서(심의위원회 출석용)

# 당사자 서약서

(심의위원회 출석용)

■ 사건번호 : 2020-000

## 1. 중요사항의 고지

-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취가 이루어지며, 녹취 자료는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누구든지 ○○대학교 성평등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5) 성평등기구는 한 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습니다.

## 2. 당사자의 의무 등

- 1)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사건내용 및 관련 인물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3)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하며, 위증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심의위원의 질의에 부합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 3.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사유 확인

위 사건 심의위원 명단을 고지 받았으며, 해당 심의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사유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 4. 구제조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피신고인]

성평등기구는 「○○대학교 △△△△△△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당사자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구제조치에 필요한 기초적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구제조치 내용 불이행으로 위 규정 제□□조에서 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성명 : \_\_\_\_\_ (인)

## • 서약서 - 참고인(심의위원회 출석용)

## 참고인 서약서

(심의위원회 출석용)

■ 사건번호 :

■ 성 명 :

## 1. 중요 고지사항

- 1)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 참고인은 관련 자료(진술서, 진단서, 전문가 소견서 등)를 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음 및 녹취가 이루어지며, 위 녹취 자료는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참고인의 의무

- 1)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의 모든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 3)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질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답변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 3) 참고인은 사건 내용 및 관련 인물의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참고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 서약서 - 조사·심의위원 서약서

## 조사·심의위원 서약서

성 명

소 속

연락처

본인은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제\*\*조(비공개원칙)에 의거하여 사건관련인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 (인)



## [부록2] 피해자 지원 기관

구분	지원 내용	연락처 및 정보 찾기
해바라기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 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li> <li>-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li> <li>- 위기지원형 : 365일 24시간, 의료법률, 법률, 수사지원제공</li> <li>- 아동형 : 만 19세 미만, 월-금 9-6시, 상담과 치료</li> <li>- 통합형 :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li> </ul>	전국 기관 안내 (별도 첨부)
여성긴급전화 1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 여성에게 전화로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li> <li>- 여성폭력피해자 초기지원 기관</li> <li>- 긴급상담</li> <li>- 보호 : 긴급 피난처 운영 임시보호 (*최대 7일간 숙식제공, 데이트폭력 피해자 최대 30일 보호)</li> <li>- 기타 기관(의료, 법률, 수사, 상담 등) 연계</li> </ul>	전화상담 : 1366 온라인 채팅, 게시판상담 : <a href="http://www.woman1366.kr">www.woman1366.kr</a>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친구찾기 '1366' 검색 → 플러스친구에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an1366) 친구추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예방 활동과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li> <li>- 피해자 및 가족 지속 상담</li> <li>- 수사, 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 조사, 법원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신청</li> <li>- 기타 기관(의료, 법률, 돌봄비용, 보호시설 등) 연계</li> </ul>	전국 170개 운영 여성이족부홈페이지 →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 검색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차적인 의료지원을 제공, 성폭력 피해자 후유증 최소화-법의학적 증거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정된 의료기관</li> <li>- 의료 : 응급키트(사건 후 72시간 이내) 증거물 채취,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 의료진 무료 진료</li> <li>- 상담 : 심리평가 및 치료(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li> </ul>	전국 326개 전담의료기관 지정 여성이족부 홈페이지 → "전담의료기관" 검색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변보호, 위급상황 등을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일정 기간 보호 및 치료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지역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치된 비공개 시설</li> <l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 상담, 수사-재판절차 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자활 지원</li> <li>-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보호시설 퇴소시 숙식제공 및 보호, 직업 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li> </ul>	전국 31개소 운영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입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li> <li>- 상담, 삭제지원, 수사, 법률, 기타 연계</li> </ul>	전화상담 :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상담 : <a href="https://www.women1366.kr/stops/">https://www.women1366.kr/stops/</a>
가정폭력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li> <li>- 피해상담</li> <li>-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li> <li>-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li> <li>- 의료-법률지원기관 또는 보호시설 연계</li> </ul>	여성이족부 홈페이지 → 정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li> <li>-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li> <li>- 진학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li> </ul>	여성이족부 홈페이지 → 정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센터 (서울지방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위해 경찰 단계에서 즉시 보호 지원</li> <li>- 여성경찰관의 단기간 신변보호</li> <li>- 사건처리절차 상담, 시설 연계</li> <li>- 귀가 후 call-back 등 사후 관리</li> </ul>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700-2973)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에 의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li> <li>- 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간병비, 학자금지원</li> <li>-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li> <li>- 법률자문, 재판모니터링, 재판동행</li> <li>- 주거환경 개선</li> </ul>	전화상담 : 1577-1295 <a href="http://www.kcva.or.kr">www.kcva.or.kr</a>
스마일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범죄 피해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회복을 지원</li> <li>-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li> <li>- 정신건강의학과 진료</li> <li>- 임시주거시설 지원</li> <li>- 법률상담, 수송구조, 전문가소견서, 재판모니터링</li> </ul>	<a href="http://www.resmile.or.kr">www.resmile.or.kr</a>
정신건강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회복 지원</li> <li>- 사례관리</li> <li>- 자살위기 개입</li> <li>-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회복지원</li> <li>- 직업재활 프로그램</li> </ul>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 전화상담 : 1577-0199

## [기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구분	지원 내용	연락처
무료 법률지원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형사, 민사 소송,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변호 지원	대한 법률구조 공단 (국번없이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피해자 국선 변호사	-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 제공 * 모든 성폭력범죄피해자(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지원	해바라기센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경찰청 (국번없이 112)
가명 조서	-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	해바라기센터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신변 안전조치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관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조치 가능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위치 안전장치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 호출기를 교부하여 위급 시 호출기를 누르면 경찰 출동 지원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긴급복지 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지원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이전비 (이사실비) 지원	-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피해자, 신고자, 친족 등에 이사비 지원 *이사 후 소요된 비용 청구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피해자 보호시설	- 중대범죄 신고자 혹은 범죄 피해자, 증인, 친족 등이 보복이 우려되어 신변의 안전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앱 : 안심이 (서울시)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39,463대)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하는 24시간 여성 안심 서비스 앱 - 위급상황 긴급신고 - 나홀로 귀가 시 안심귀가 모니터링 -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	모바일에서 '서울시 안심이' 검색 후 다운로드

## 여성 ·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기관명	주소	위탁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서울 중구 서소문로50 3층(04505)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02-735-7510 F.02-6363-8494	<a href="http://www.stop.or.kr">www.stop.or.kr</a>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도메인/이메일
서울 동부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05715)	경찰 병원	T.02-3400-1700 F.02-3400-1694	<a href="http://www.smonestop.or.kr">www.smonestop.or.kr</a> seoulonestop@naver.com
서울 남부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07061)	보라매 병원	T.02-870-1700 F.02-870-1116	<a href="http://www.smsonestop.or.kr">www.smsonestop.or.kr</a> onestop1117@naver.com
부산 동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지하 1층 (47527)	부산 의료원	T.051-501-9117 F.051-506-4117	<a href="http://www.bsonestop.or.kr">www.bsonestop.or.kr</a> bsonestop@hanmail.net
대구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41845)	대구 의료원	T.053-556-8117 F.053-556-5117	<a href="http://www.tgonestop.or.kr">www.tgonestop.or.kr</a> dgonestop@daum.net
인천 동부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22532)	인천 의료원	T.032-582-1170 F.032-582-1179	<a href="http://www.iconestop.or.kr">www.iconestop.or.kr</a> iconestop@hanmail.net
인천 북부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1431)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T.032-280-5678 F.032-280-5677	<a href="http://www.icnonestop.or.kr">www.icnonestop.or.kr</a> icnonestop@hanmail.net
광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61453)	조선대 병원	T.062-225-3117 F.062-234-3117	<a href="http://www.gjonestop.or.kr">www.gjonestop.or.kr</a> gjonestop@hanmail.net
경기 북동부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11671)	의정부 의료원	T.031-874-3117 F.031-872-4117	<a href="http://www.ggnonestop.or.kr">www.ggnonestop.or.kr</a> ggnone-stop@hanmail.net
경기 서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6 한도병원 제2별관 2층 (15367)	한도 병원	T.031-364-8117 F.031-365-5222	<a href="http://www.ggwsunflower.or.kr">www.ggwsunflower.or.kr</a> ggwsunflower@handoh.com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48 청주의료원 (28547)	청주 의료원	T.043-272-7117 F.043-268-7117	<a href="http://www.cbonestop.or.kr">www.cbonestop.or.kr</a> cj- onestop@hanmail.net

충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31116)	단국대 병원	T.041-567-7117 F.041-522-8117	<a href="http://www.cnonestop.or.kr">www.cnonestop.or.kr</a> cnone-stop@hanmail.net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54907)	전북대 병원	T.063-278-0117 F.063-278-2117	<a href="http://www.jb-onestop.or.kr">www.jb-onestop.or.kr</a> jbonestop@naver.com
전남 동부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 가롤로병원 별관 (57931)	성가롤로 병원	T.061-727-0117 F.061-727-9024	<a href="http://www.jnonestop.or.kr">www.jnonestop.or.kr</a> jnonestop@hanmail.net
경북 북부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36694)	안동 의료원	T.054-843-1117 F.054-843-6117	<a href="http://www.gbonestop.or.kr">www.gbonestop.or.kr</a> gbonestop@hanmail.net
경북 서부	경북 김천시 신음1길12 김천제일병원 7층 (39544)	김천 제일병원	T.054-439-9600 F.054-439-8700	<a href="http://www.sbonestop.or.kr">www.sbonestop.or.kr</a> sbonestop@hanmail.net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74 (51264)	마산 의료원	T.055-245-8117 F.055-244-3117	<a href="http://www.gnonestop.or.kr">www.gnonestop.or.kr</a> gn1stop@hanmail.net

### 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도메인/이메일
서울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04108)	연세 의료원	T.02-3274-1375 F.02-3274-1377	<a href="http://www.child1375.or.kr">www.child1375.or.kr</a> help@child1375.or.kr
대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동인동2가 244-1) 2,3층 (41944)	경북대 병원	T.053-421-1375 F.053-421-1370	<a href="http://www.csart.or.kr">www.csart.or.kr</a> ysf1375@hanmail.net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2층 (21556)	가천대 길병원	T.032-423-1375 F.032-432-1375	<a href="http://www.sunflowericn.or.kr">www.sunflowericn.or.kr</a> isc1375@gilhospital.com
광주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61486)	전남대 병원	T.062-232-1375 F.062-232-1376	<a href="http://www.forchild.or.kr">www.forchild.or.kr</a> sunflower1375@hanmail.net
경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13521)	분당 차병원	T.031-708-1375 F.031-708-1355	<a href="http://www.sunflower1375.or.kr">www.sunflower1375.or.kr</a> sunflower1375@sunflower1375.or.kr
충북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 (교현동, 보성빌딩 4층) (27377)	건국대 충주병원	T.043-857-1375 F.043-857-1380	<a href="http://www.helpsunflower.or.kr">www.helpsunflower.or.kr</a> csc1375@hanmail.net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BANK빌딩 2층 (54906)	전북대 병원	T.063-246-1375 F.063-247-1377	<a href="http://www.jbsunflower.or.kr">www.jbsunflower.or.kr</a> jbsunflower@hanmail.net
----	---------------------------------------	--------	----------------------------------	---

###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센터명	주소	위탁병원	연락처	도메인/이메일
서울	본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지하1층 (03080)	서울대 병원	본관 T.02-3672-0365 F.02-3672-0368	<a href="http://www.help0365.or.kr">www.help0365.or.kr</a> help@help0365.or.kr
	별관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송빌딩 2층 (03086)		* 별관 T.02-745-0366,0367 F.02-745-0368	
서울 북부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02500)	삼육 서울병원	T.02-3390-4145 F.02-3390-4155	<a href="http://www.snsunflower.or.kr">www.snsunflower.or.kr</a> sunflower_sn@hanmail.net
서울 중부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 6가 18-79) (04564)	국립중앙 의료원	T.02-2266-8276 F.02-2276-2056	<a href="http://www.scsunflower.or.kr">www.scsunflower.or.kr</a> sunflower@nmc.or.kr
부산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5동 (융합의학연구동) 3층 (49241)	부산대 병원	T.051-244-1375 F.051-244-1377	<a href="http://www.pnuh.or.kr">www.pnuh.or.kr</a> bssun1375@gmail.com
대전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35015)	충남대 병원	T.042-280-8436 F.042-280-8434	<a href="http://www.djsunflower.or.kr">www.djsunflower.or.kr</a> djonestop@hanmail.net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44686)	울산 병원	T.052-265-1375 F.052-244-6117	<a href="http://www.ussunflower.or.kr">www.ussunflower.or.kr</a> ussunflower@hanmail.net
경기 남부	거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도병원 약국 3층 (16502)	아주대 병원	T.031-217-9117 F.031-217-5198	<a href="http://www.ggsunflower.or.kr">www.ggsunflower.or.kr</a> ggsun1117@daum.net
	통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아주대학교병원 내) (16499)		* 지속 T.031-215-1117 F.031-214-9373	
			응급 T.031-216-1117 F.031-216-1109	

경기 북서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10497)		명지 병원	* 통합	T.031-816-1375 F.031-816-1399	www.gnwsunflower.or.kr gnwsunflower@gmail.com
				응급	T.031-816-1374 F.031-810-7399	
강원 서부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24289)		강원대 병원		T.033-252-1375 F.033-254-1376	www.gwsunflower.or.kr gwchildsaver@hanmail.net
강원 동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25478)		강릉 동인병원		T.033-652-9840 F.033-652-9839	www.sunflower6447.or.kr sunflower6447@hanmail.net
강원 남부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문창모기념관 5층 (26426)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T.033-735-1375 F.033-742-1375	www.gnsunflower.or.kr gnsunflower@naver.com
전남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기독병원 6층 (57044)		영광 기독병원		T.061-350-3045 F.061-353-4375	(홈페이지) 개설중 jnygsun@hanmail.net
전북 서부	전북 익산시 무왕로 859 원광대병원 (54538)		원광대 병원		T.063-859-1375 F.063-859-1353	www.wksunflower.o.kr wksunflower@hanmail.net
경북 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성루가관 지하3층 (37661)		포항 성모병원		T.054-278-1375 F.054-278-1350	www.gbsunflower.or.kr gbsunflower@hanmail.net
경남 서부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52727)		경상대 병원		T.055-754-1375 F.055-754-1378	www.savechild.kr gsc1374@hanmail.net
제주	본관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2층(연동, 한라병원) (63127)	한라 병원	본관	T.064-749-5117 F.064-749-6117	www.jjonestop.or.kr 117stop@hanmail.net
	* 별관	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3층 (63098)		* 별관	T.064-748-5117 F.064-748-6117	




 (사)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20년 2월 발행

발 행 :  교육부

편 집 :  (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인 쇄 : 늦봄기획 (02-2269-8030)